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제 14 기 제 9 차 회의의 진행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제 14 기 제 9 차 회의가 9월 26일부터 27일까지 만수대의사에서 진행되었다.

회의는 온 나라 전체 인민이 강대하고 존엄높은 우리 국가의 창건 75돐을 청사에 특기할 혁명적대경사로 성대히 경축한 크나큰 민족적자부심과 애국의 열의를 더욱 승화시켜 뜻깊은 올해를 공화국의 발전행로에 크게 아로새겨질 위대한 전환의 해, 변혁의 해로 빛내이기 위한 투쟁을 일층 가속화해나가고있는 시기에 소집되었다.

회의에는 최고인민회의의 대의원들과 방청으로 당중앙위원회,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내각, 무력, 법기관, 금융부문을 비롯한 중앙과 지방의 해당 일군들이 참가하였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부위원장인 김덕훈 내각총리,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제1부위원장인 최룡해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인 리병철 당중앙위원회 비서를 비롯한 당과 정부, 군부의 간부들과 최고인민회의의 의장, 부의장들, 국무위원회 위원들,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부위원장, 서기장, 위원들이 주석단에 자리잡았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제 14 기 제 9 차 회의에서는 다음과 같은 의안들이 토의되었다.

첫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의 일부 내용을 수정보충함에 대하여

둘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장애자권리보장법을 심의채택함에 대하여

셋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관개법을 심의채택함에 대하여

넷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공무원법을 심의채택함에 대하여

다섯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금융부문을 법집행형통화에 대하여

여섯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가우주개발국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가항공우주기술총국으로 합에 대하여

일곱째, 조직문제

조선로동당 총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장인 김정은은 원수님께서 헌법개정에 대한 첫째 의정도의에 방청으로 참석하시었다.

김정은은 원수님께서 회의장에 나오시자 전체 참가자들은 자주적이며 자위적인 국가건설과 국가방위력강화의 새 전기를 펼치고 우리식 사회주의의 전면적발전을 위한 백년대계의 투쟁을 즐기찬 성공으로 확신있게 이끄시는 조선



로동당과 국가, 인민의 모든 승리와 영광의 상징이시며 위대한 존엄의 대표자이신 김정은 원수님을 우리러 열광의 환호를 터쳐올리었다.

박인철 최고인민회의의 의장이 회의의 사회하였다.

개회가 선언되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가가 주악되었다.

첫째 의정에 대한 보고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 최룡해대원이 하였다.

보고자는 본 최고인민회의가 국가방위에서 차지하는 핵무력의 지위와 핵무력건설에 관한 국가활동원칙을 공화국의 기본법이며 사회주의강국건설의 위대한 정치원칙인 사회주의헌법에 규제하기 위하여 헌법수정보충안을 심의채택하게 된다고 말하였다.

역사적인 최고인민회의 제 14 기 제 7 차 회의에서 국가핵무력정책에 관한 법령이 발포된 이후 지난 1년간 공화국핵무력의 변혁적인 발전상과 경제문화분야에서 이룩된 경이적인 성과, 국제무대에서 일어난 괄목할 변화들은 국가핵무력정책법화의 정당성과 생활력을 뚜렷이 확증해주었다고 그는 강조하였다.

그는 국가핵무력정책법화의 성과에 토대하여 현대적인 핵무력건설과 공화국무장력의 시대적사명에 관한 국가활동원칙을 사회주의헌법에 교차시키는것이 가지는 중대한 의의에 대하여 언급하였다.

보고자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책임적인 핵보유국으로서 나라의 생존권과 발전권을 담보하고 전쟁을 억제하며 지역과 세계의 평화와 안정을 수호하기 위하여 핵무기발전을 고도화한다는 내용과 공화국무장력의 사명이 국가주권과 영토완정,

인민의 권익을 옹호하며 모든 위협으로부터 사회주의제도와 혁명의 전취물을 사수하고 조국의 평화와 번영을 강력한 군력으로 담보하는데 있다는 내용이 수정보충안에 반영되는데 대하여 밝히면서 이를 본 최고인민회의의 심의에 제기하였다.

회의에서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의 법령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의 일부 내용을 수정보충함에 대하여》가 참가자들의 전폭적인 지지찬동속에 채택되었다.

공화국의 핵무력정책을 최고인민회의 제 14 기 제 7 차 회의에서 법적으로 고착시킨데 이어 국가의 기본법으로 공식화하는 중대의정이 만장일치로 채택된것은 핵무력을 포함한 국가방위력을 비상히 강화하고 그에 의거한 안전담보와 국익수호의 제도적, 법률적기반을 튼튼히 다지며 우리식 사회주의의 전면적발전을 촉진시킬수 있는 강위력한 정치적무기를 마련한 역사적사건으로 된다.

김정은은 원수님께서 연설을 하시었다.

김정은은 원수님께서서는 전체 조선인민의 총의를 담아 가장 역사적인 결의권을 행사하고 공화국의 헌정사에 빛나는 한페지를 장식한 최고인민회의의 대의원들에게 충심으로 되는 사의를 표시하면서 전체 인민에게 송고한 경의의 인사를 보내시었다.

김정은은 원수님께서서는 사회주의강국건설 위업수행의 새로운 고조기, 격변기를 맞이하고있는 우리 혁명에 있어서 중요한 의의를 가지는 올해에 이룩된 자랑스런 성과들을 총화하시고 앞으로의 투쟁방향과 정책적과업들을 언명하시면서 얼마 남지 않은 연말까지 완강하고도 실속있는 투쟁으로써 2023년을 자랑스런 승리로 계속할데

대하여 호소하시었다.

경애하는 김정은 원수님께서 연설을 마치시자 전체 참가자들은 사회주의조선의 강대무비한 국력의 즐기찬 강화를 위한 백승의 실천강령, 인민의 리상사회건설을 촉진하는 불멸의 대강을 받아안은 감격과 환희에 넘쳐 열광적인 환호와 박수를 터쳐올리었다.

김정은은 원수님의 뜻깊은 연설은 진정한 자주강국이며 참다운 인민의 정권인 우리 공화국의 불패의 위력을 백방으로 강화하고 주체의 사회주의강국건설위업의 새로운 승리와 거창한 전진을 힘있게 추동하는 전투적기치, 위대한 혁명문헌으로 된다.

회의에서는 다음정들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장애자권리보장법, 관개법, 공무원법초안들에 대한 토의가 진행되었다.

둘째 의정과 셋째 의정, 넷째 의정에 대한 보고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부위원장 강윤석대원이 하였다.

보고자는 해당 법초안들에 우리 당의 장애자권리보장정책과 새시대 농촌혁명강령수행을 철저히 담보하며 국가사회제도를 더욱 공고발전시켜나가는데서 나서는 원칙적문제들이 반영되는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그는 장애자들의 사회정치적, 경제문화적권리를 철저히 보장하고 그들이 국가와 사회의 주인으로서 보람찬 삶을 누리도록 할데 대한 규범, 농촌경리의 수리화를 높은 수준에서 실현하고 농업생산의 지속적이며 안정적인 발전을 보장하는데서 나서는 법적요구, 공무원대렬을 튼튼히 꾸려 당과 국가정책의 옳바른 집행을 보장하고 국가관리를 개선하기 위한 규칙 등 해당 법초안의 내용들에 대하여 장별로 해설하였다.

본시가지

최고인민회의의 상임위원회는 사회주의헌법 제 95 조에 따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장애자권리보장법초안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관개법초안,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공무원법초안을 본 최고인민회의의 심의에 제기하였다.

회의에서는 둘째 의정과 셋째 의정, 넷째 의정에 대한 토론을 김승두대의원, 허성철대의원, 박명선대의원, 신관봉대의원, 전승국대의원, 허성호대의원이 하였다.

회의는 대의원들의 건설적인 의견들을 심의보충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의 법령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장애자권리보장법을 채택함에 대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관개법을 채택함에 대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공무원법을 채택함에 대하여》를 채택하였다.

회의에서는 다섯째 의정으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금융부문을 법집행형통화에 대하여》를 토의하였다.

내각부총리 겸 국가계획위원회 위원장 박정근대원이 보고를 제기하였다.

보고자는 국가금융체계를 현실발전의 요구에 부응한 과학적인 토대우에 올려세우는 사업의 중요성에 립각하여 금융부문을 법집행에서의 성과와 경험, 편향과 교훈을 분석총화하였으며 국가의 통일적인 금융관리체계를 보완하여 국가경제발전을 실속있게 추동해나가는데서 절실한 실천적문제들을 언급하였다.

이어 진행된 토론들에서는 당과 국가, 인민앞에 지닌 무거운 책무를 자각하고 백배로 분발하여 모든 부문, 모든 단위에서 금융부문을 법의 요구를 철저히 준수하도록 함으로써 조선로동당 제 8 차대회 결정관철을 금융적으로 튼튼히 담보해나갈 결의들이 표명되었다.

회의에서는 다섯째 의정에 대한 결정이 일치가결되었다.

회의는 여섯째 의정으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가우주개발국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가항공우주기술총국으로 합에 대하여》를 토의하고 그에 대한 결정을 전원찬성으로 채택하였다.

회의는 일곱째 의정으로 조직문제를 토의하였다.

박인철 최고인민회의의 의장이 폐회사를 하였다.

최고인민회의 제 14 기 제 9 차 회의는 비범한 사상과 령도로 우리 공화국의 존엄과 강대성을 만방에 힘있게 떨쳐가는 위대한 당중앙을 일심전력으로 받들어 인민의 대표, 국정의 주인으로서의 중대한 책무를 다해나갈 참가자들의 혁명적자각과 열의속에 자기 사업을 성과적으로 마치었다.

본시가지

경애하는 김정은 원수님께서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9차회의에서 뜻깊은 연설을 하시였다

조선로동당 총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장이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9차회의에 참석하시어 뜻깊은 연설을 하시였다.

친애하는 대의원동지들!
존경하는 상임위원장동지, 그리고 최고인민회의 의장동지!

방청자 여러분!
오늘 우리 혁명은 간고하고도 완강한 투쟁으로 이룩한 귀중한 성과에 토대하여 자주, 자립, 자위의 불패의 사회주의강국으로 힘차게 나아가는 새로운 전진과 력동의 시대에 들어섰습니다.

특히 우리의 공화국창건 75돐과 위대한 조국해방전쟁승리 70돐이 되는 뜻깊은 올해는 사회주의강국건설위업을 완성해나가는 새로운 고조기, 격변기를 맞이하고있는 우리 혁명에 있어서 커다란 의의를 가지는 매우 중요한 해로 됩니다.

당중앙은 우리의 사회주의발전로정과 공화국의 력사에서 중요한 계기로 되는 올해에 전인민적인 투쟁기세를 더욱 배가하여 2023년을 공화국의 발전행로에 크게 아로새길 위대한 전환의 해, 변혁의 해로 만들데 대하여 호소하였으며 그 실현을 위한 전략적과업들을 제시하였습니다.

당과 혁명의 부름에 언제나 애국충성으로 화답해온 우리의 전체 인민군장병들과 인민들은 당 제8차대회와 당중앙위원회 전원회의들에서 제시된 주요당 및 국가정책과업들을 관철하기 위한 헌신적투쟁을 과감히 벌려 사회주의건설의 모든 분야에서 자랑찬 성과들을 이룩하였습니다.

국가적인 정치문화행사를 비롯한 여러 계기들을 통해서 당과 인민의 일심단결을 핵으로 하는 우리의 정치사상적위력을 남김없이 과시하였으며 국가경제의 안정적발전을 보장하고 인민생활향상에서 실제적변화를 가져오기 위한 투쟁에 모두가 총열기해나섬으로써 경제건설의 각 분야에서 뚜렷한 장성추이를 보이고있습니다.

구심한 자연재해를 이겨내고 풍작을 거두고있는 농업발전의 놀라운 현실과 날마다 몰라보게 일떠서는 새 거리, 새 살림집을 비롯하여 나라의 곳곳에서 일어나고있는 기적적인 변화들은 우리 인민들에게 유족하고 문명한 생활조건을 마련해줄 수 있는 밝은 전망을 기약해주고있습니다.

올해 우리가 이룩한 성과중에 가장 큰 성과는 나라의 국가방위력, 핵전쟁억제력강화에서 비약의 전성기를 확고히 열어놓은것입니다.

국방과학발전 및 무기체계개발 5개년계획의 주요과업들이 성과적으로 수행되고 우리 식의 위력한 핵공격수단들과 새로운 전략무기체계개발도 입에서 급진적인 도약을 이룩함으로써 우리 공화국핵전력투력의 신뢰성을 만방에 과시하고 적대세력들을 불가극복의 위협과 공포속에 몰아넣었습니다.



오늘 우리 국가의 전략적힘, 핵전쟁억제력은 지난 년대들과는 대비할수 없을 정도로 비상이 다져지고 끊임없이 강화되어가고있습니다.

강력한 방위력과 압도적인 공격력을 철저히 갖춘 공화국의 위력적실상을 현실로 보여주는 이러한 눈부신 성과는 자기의 자주권과 생존권을 건드리지는 그 어떤 행위도 용납하지 않으려는 조선의 담력과 결행력이 어떤것인가를 명명백백히 증빙하여 주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위대한 우리 인민이 자체의 힘으로, 자신의 손으로 이룩한 결실이고 빛나는 기적입니다.

우리 국가의 최고주권기관인 최고인민회의는 이번 제14기 제9차회의에서 75년에 걸치는 존엄높은 자기의 주권활동사와 공화국의 영광스러운 발전사에 특기할 또 하나의 의의깊고 사변적인 정치적성과를 이루어냈습니다.

이번 최고인민회의가 국가관리와 경제발전, 인민적시책과 관련된 여러 법령들의 채택과 함께 나라의 헌법에 세시대 우리 국력의 실상을 반영하는 사업을 성과적으로 진행한것으로 하여 본 회기는 공화국의 헌정사에 팔목할 폐지를 새긴 역사적인 회의로 기록되게 되었습니다.

김정은원수님께서서는 바로 1년전 전체 조선인민의 총의에 따라 국가핵무력정책을 엄숙히 법화한 이 의사당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 헌법 제4장 58조에 핵무기발전을 고도화하여 나

라의 생존권과 발전권을 담보하고 전쟁을 억제하며 지역과 세계의 평화와 안정을 수호한다는 내용을 명기할데 대하여 만장일치로 채택한것은 매우 심원하고 중대한 의미를 가진다고 하시면서 이로써 우리 인민의 성스러운 투쟁을 통하여 이룩한 성과와 국가핵무력정책을 공화국 최고법으로 담보하는 필수불가결한 역사적, 정치적과제가 빛나게 달성되었다고 강조하시였다.

김정은원수님께서서는 공화국의 핵무력건설정책이 그 누구도, 그 무엇으로써도 다칠수 없게 국가의 기본법으로 영구화된것은 핵무력이 포함된 국가방위력을 비상이 강화하고 그에 의거한 안전담보와 국익수호의 제도적, 법률적기반을 튼튼히 다지며 우리식 사회주의의 전면적발전을 촉진시킬수 있는 강위력한 정치적무기를 마련한 역사적인 사변이라고 말씀하시였다.

김정은원수님께서서는 오직 자존과 존엄을 생명보다 더 귀중히 여기고 그것을 위하여 어떤 대가도 치를 각오와 의지가 전체 인민의 신념으로 굳건한 국가, 실제로 세대를 잇는 장구하고도 간고한 전대미문의 투쟁으로 핵보유의 대업을 성취하고 그것을 자주와 정의, 발전의 가장 귀중한 절대적힘으로 틀어쥐고 정부와 인민만이 이러한 기적을 탄생시킬수 있는것이라고 하시면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장이로서 전체 조선인민의 위대하고 신성한 투쟁의 전취물을 헌법으로 고착시키는 대단히 중대하고 의의있는 국정토의에서 자기의 결

의권을 가장 책임적으로 행사하여준 대의원동지들에게 총심으로부러의 감사를 드린다고 하시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은 우리 국가와 인민의 존엄과 주권, 자주적발전을 담보하는 법적기초이며 혁명과 건설의 승리적전진방향을 밝힌 정치헌장입니다.

사회주의조건과 더불어 영존할 국가최고법에 핵무력강화정책기조를 명명백백히 규제한것은 현시대의 당면한 요구는 물론 사회주의국가건설의 합법칙성과 전망적요구에 철저히 부합되는 가장 정당하고 적절한 중대조치로 됩니다.

우리 공화국이 세계최대의 핵무기보유국이며 가장 위험한 전쟁국가인 미국과 그 추종세력과의 장기적인 대결속에서 자위를 위해 불가피하게 핵을 보유하였고 핵무력강화정책을 법화한데 대하여서는 세계가 공인하는 사실입니다.

지금도 패권열망과 팽창주의적환상실현에 광분하고있는 제국주의반동세력에 의해 전지구적범위에서 《신냉전》구도가 현실화되고 주권국가들의 존립과 인민들의 생존권마저 엄중히 위협당하고있는 현 상황은 모진 시련을 이겨내며 핵무력을 건설하고 그것을 불가역적인 국법으로 고착시킨 우리 공화국의 결단이 얼마나 천만지당한가를 립증해주고있습니다.

만일 우리 공화국이 계속 가중되어온 미국의 핵공갈과 위협앞에서 남들의 핵우산에 막연한 기대를 걸고 앉아있었거나 제국주의자들이 극성스레 광고하는 알량한 《선의》와 화려한 유혹에 환상을 가지고 핵보유로선을 결단하지 못하였더라면, 그리고 출발을 뻔 간고한 길에서 멈춰서거나 후퇴하였더라면 기필코 오래전에 핵참화와 절멸의 재난을 면치 못했을것이며 적들의 횡포무도한 도전과 압박에 단호히 대응하면서 국가의 존위와 위력을 선양하고 세계의 정의를 선도하는 오늘의 자랑스러운 현실을 상상조차 할수 없을것입니다.

이미 지난 세기에 우리 국가의 물리적제거를 목적으로 내세우고 그 실현을 위한 전쟁까지 강요했던 미국은 오늘에 이르러서도 우리의 《정권종말》을 실현하기 위한 침략전쟁각본을 부단히 개악하면서 《대한민국》과의 공모밑에 우리 국가에 대한 핵무기사용을 목적으로 한 《핵협의그루뵈》를 가동시킨데 기초하여 침략적성격이 명백한 대규모핵전쟁합동군사연습을 재개하고 조선반도지역에 핵전략자산들을 상시배치수준에서 끌어들이도록 우리 공화국에 대한 핵전쟁위협을 사상최악의 수준으로 극대화하고있습니다.

뿐만아니라 일본, 《대한민국》과의 3각군사동맹체계수립을 본격화함으로써 전쟁과 침략의 근원적기초인 《아시아판 나토》가 끝내 자기 흥체를 드러내게 되였으며 이것은 그 무슨 수사적위협이나 표상적인 실체가 아닌 실제적인 최대의 위협입니다.

(3면으로 계속)

경애하는 김정은 원수님께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9차회의에서 뜻깊은 연설을 하시였다

(2면에서 계속)

맹전식사고방식에 찌든대로 찌든 미국의 반공화국군사적도발책동이 극도에 달하고있는 오늘날 전략적억제력의 확고한 우세를 차지하고 더욱 철저히 제압하고 관리하면서 조선반도지역의 안정을 수호하기 위한 투쟁에서 책임적인 핵보유국으로서의 사명을 다해나가자면 핵무기의 고도화를 가속적으로 실현해나가것이 매우 중차대한 문제로 나섭니다.

그렇다고 하여 공화국정부가 단순히 립박한 정세악화의 추이만을 분석고찰하고 핵무력강화정책의 헌법화라는 중대의제를 최고인민회의에 상정시킨것은 아닙니다.

우리 공화국이 사회주의국가로 존재하는한, 자주와 사회주의를 말살하려는 제국주의자들의 폭제의 핵이 지구상에 존재하는한 핵보유국의 현 지위를 절대로 변경시켜서도, 양보하여서도 안되며 오히려 핵무력을 지속적으로 더욱 강화해나가야 한다는것이 우리 당과 정부가 내린 엄정한 전략적 판단입니다.

력사를 돌이켜보면 이 행성에 핵무기가 출현하고 첫 핵참화가 일어난 때로부터 인류는 핵무기가 없는 세계를 소망하였으며 우리 공화국도 1950년의 조선전쟁때부터 시작된 핵공갈의 직접적인 피해당사자로서 조선반도와 지역을 비핵지대로 만들기 위한 평화애호적인 노력을 거듭하여왔습니다.

그러나 미제는 단지 사상과 제도가 다르다는 리유로 우리의 평화애호적인 제안들을 모두 무시하고 비핵국가인 공화국에 대한 핵위협을 장장 수십년간 지속해 가증시켜왔으며 이로 하여 우리의 사회주의건설은 막대한 장애와 엄중한 난관을 겪지 않으면 안되었으며 지어 국가존립마저 위태로운 비상국면에 직면한 때도 적지 않았습니니다.

이것은 우리 공화국으로 하여금 적대세력의 핵위협에는 반드시 핵으로 맞서야 한다는 철리와 함께 일단 보유한 핵은 세월이 흐르고 대가 바뀌어도 국가의 영원한 전략자산으로 보존강화하고 누구도, 어떤 경우에도 이를 훼손할수 없게 해야 할 필연성을 절감하게 하였습니니다.

김정은원수님께서서는 국가핵무력정책을 법화한데 이어 헌법에까지 당당히 명기함으로써 자주적이며 자위적인 국가건설과 국가방위력강화의 전위를 개척한데 대하여 웅당한 자긍심을 가져야 하며 이력사적인 성과에 토대하여 우리식 사회주의의 전면적발전을 위한 투쟁을 더욱 힘있게 벌려나가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김정은원수님께서서는 조선로동당 제8차대회가 제시한 현 단계의 투쟁강령실현에서 우리 당과 공화국정부가 잠시도 멈춤없이 추진시켜야 할 중대과제는 핵무력을 질량적으로 급속히 강화하는것이 라고 하시면서 핵무기생산을 기하급수적으로 늘이고 핵타격수단들의 다종화를 실현하며 여러 군종에 실천배비하는 사업을 강력히 집행해나갈데 대하여 강조하시였다.

김정은원수님께서서는 현 단계에서의 우리 당의 대외정책에 대하여 다시금 구체적으로 명시하시

면서 그에 립각하여 대외사업을 능동적으로 전개해나가는데서 나서는 원칙적문제들을 밝히시였다.

김정은원수님께서서는 대외사업부문에서 당중앙의 대외전략을 일관하게 틀어쥐고 우리 혁명에 유리한 조건과 환경을 마련하기 위한 대외활동을 폭넓고 전망성있게 벌리는것과 함께 반제자주적인 나라들의 전위에서 혁명적원칙, 자주적대를 확고히 견지하면서 미국과 서방의 패권전략에 반기를 든 국가들과의 련대를 가일층 강화해나갈데 대하여 강조하시였다.

이번 최고인민회의는 공화국정부의 인민적시책을 더 잘 보장하고 나라의 중요경제사업들을 안정경도에 올려세우기 위한 부문법들도 심의체력하게 됩니다.

물론 시대와 혁명발전의 요구에 맞게 사회주의건설을 보다 강력히 추진시킬수 있는 법적무기를 마련한것은 귀중한 성과로 되지만 더우기 중요한것은 당과 국가의 결정지시가 철저히 관철되어 모든 부문, 모든 분야에서 실질적인 진전비약이 이룩되도록 하는것입니다.

사회주의의 전면적발전으로 향한 새로운 5개년계획을 내세운 당 제8차대회 결정을 완수하기 위한 우리 당과 인민의 역사적투쟁은 오늘 중대한 시기에 들어섰습니니다.

건국이래 류체를 찾아볼수 없는 국난이 겹쌓인속에서도 과감한 계속전진의 기세로 쟁취한 기적적인 승리와 성과들이 더 큰 승리와 성과로 이어지는가 못하는가 하는것이 이제부터의 2년 남짓한 기간에 달려있습니다.

정치와 경제, 문화의 모든 방면에서 지금까지의 투쟁과정에 이룩된 성과와 경험을 더욱 공고히 하면서 당대회와 당중앙전원회의들이 포치한 계획과 당면과업들을 한치의 드림도 없이 무조건 관철하고 훌륭한 실체로 전환시키는데 끊임없는 박차를 가하여야 합니다.

오늘 우리 공화국정부에 있어서 인민경제발전 12개 고지를 비롯한 경제목표들을 빛나게 달성하여 나라의 경제사업과 인민생활문제해결에서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오는것은 제일 절박한 과제로 나섭니니다.

내각을 비롯한 국가경제지도기관들과 도, 시, 군인민위원회들은 나라의 경제전반과 해당 지역의 경제사업실태를 말끔히 장악하고 변천하는 현실적 조건과 환경에 맞게 경제작전과 지도를 보다 치밀하고 박력있게 하여 당과 국가가 결정한 경제발전 목표와 과업들이 철저히 완벽하게 달성되도록 하여야 합니다.

인민경제발전 12개 고지를 맡은 경제부문들에서 공화국력사에 위대한 천리마시대를 펼쳐놓은 전세대들의 투쟁정신, 투쟁기풍으로 새로운 생산적양양과 혁신적성과를 이룩하며 사회주의경제건설전반을 더욱 힘있게 추동하여야 합니다.

특히 우리 당이 제시한 새시대 농촌혁명강령을 철저히 관철하는데 농업부문이 더욱 과감히 분기하고 국가의 강력한 지원을 부단히 증대시켜 우리 인민의 세기적속망을 하루빨리 위대한 현실로 만

들어야 합니다.

인민의 리익과 요구를 최우선, 절대시하는것을 자기 활동의 최고원칙으로 하고있는 공화국정부는 인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한 사업에 계속 우선적인 힘을 넣어야 합니다.

평양시 5만세대 살림집건설과 지방건설, 농촌건설을 통이 크게, 힘있게 내밀고 당의 육아보육정책, 경공업정책들을 정확히 집행하며 국토의 면모와 생태환경을 끊임없이 개선하는것은 우리 국가의 인민적성격으로부터 반드시 결실을 안아와야 할 중요과업들입니다.

공화국정부는 우리 국격과 국위가 높아지고있는데 맞게 과학과 교육, 보건을 비롯한 사회주의 문화부문에서 뚜렷하고도 결정적인 개진을 가져와야 합니다.

당대회와 당중앙전원회의들이 결정한 국가과학 기술발전전략과 계획들을 성과적으로 집행하고 나라의 교육구조, 교육내용과 방법을 선진교육을 줄수 있게 질적으로 개선하며 가장 인민적인 보건제도의 우월성이 발양되도록 전반적인 보건토대를 높은 수준에서 강화하기 위한 사업들을 확신성있게 밀고나가야 합니다.

문화예술과 출판보도, 체육부문에서 우리 공화국의 위상과 발전상, 우리 인민의 애국열의와 혁명적기상을 더욱 높이는데 이바지하는 자랑스런 혁신적성과들을 이룩해나가도록 하여야 합니다.

공화국정부는 나라의 기강을 강하게 세우고 온 사회에 훌륭한 공산주의적기풍을 수립하며 모든 부문, 모든 분야에서 발전지향적인 창조방식, 혁명적인 사업기풍이 차넘치게 하는것을 한시도 소홀히 하지 말아야 할 투쟁과업으로 틀어쥐고나가야 합니다.

당 제8차대회를 계기로 당적, 행정적, 법적으로 이를 위한 투쟁의 도수가 더욱 높아졌다고 하지만 최근 국가적인 재해방위사업에서 대단히 엄중한 결점이 집중적으로 드러난것만 보아도 의연히 국가지도기관들과 일군들의 사업에 무질서, 무책임성, 무관심성을 비롯한 폐단들이 고질적으로 내재하고 있다는것을 실증하여줍니다.

공화국정부는 모든 기관, 기업소, 공민들이 높은 정치의식, 책임의식을 가지고 국가의 중앙집권적규률에 복종하며 나라의 법을 철저히 준수하고 온갖 반사회주의, 비사회주의적현상을 억제하도록 통일적이며 강도높은 통제와 투쟁을 계속 드세게 벌려나가야 합니다.

우리 혁명의 격동적인 년대들에 발휘되였던 혁명적인 대중운동, 전인민적인 애국운동의 고귀한 전통이 생활력을 나타내도록 하여 이것이 우리 시대는 물론 대를 이어 굳건히 계승발전되게 하며 모든 부문, 모든 분야, 모든 단위가 국가의 근본리익, 전망적리익을 앞에 놓고 끊임없이 새것을 창조하고 발전시켜나가도록 적극 추동하여야 합니다.

김정은원수님께서서는 오늘 우리 공화국정부앞에 나서는 책임적이고도 중대한 과업들을 성과적으로 수행해나가는데서 인민의 대표들인 대의원들의 역할을 최대로 높이는것이 비할바없이 중요하다고

하시면서 최고인민회의 대의원들이 실지 남달리 높은 애국심, 애민정신을 체질화하고 국가발전과 인민의 리익실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분투해나갈것을 절절히 당부하시였다.

최고인민회의 대의원들은 인민이 믿고 선출한 최고대표라는 이 성스러운 부름에 국가와 인민의 열마나 크나큰 신임과 무게가 실려있는가를 항상 뼈저리게 자각하고 실지 자기의 중대한 사명과 책임에 무한히 충실하기 위하여 최대의 노력을 경주하여야 합니다.

국가와 인민을 량심으로, 신념으로, 심장으로 받들줄 아는 사람이야말로 인민의 진정한 대표이고 참된 대의원이라는것을 순간도 잊어서는 안됩니다.

최고인민회의 대의원들은 우리 로동당의 손길아래 인민의 대표, 최고주권기관의 대표라는 영예와 존엄을 지닌것만큼 조선로동당의 모든 정책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자기 당, 자기 국가, 자기 인민을 위하여 한가지라도 더 유익하고 훌륭한 일을 할 일념에 항상 충만되어있어야 하며 온넋과 혼심을 깡그리 바치는 헌신분투로써 실천적인 성과들을 조국과 인민앞에 떳떳이 내놓아야 할것입니다.

세계민방에 국위와 국력, 국광을 유감없이 떨치고있는 오늘의 존엄높은 우리 공화국을 총의 지심을 다해 가장 열렬하게, 가장 견결하게, 가장 뜨겁게 받드는 인민의 진정한 대표, 참된 총복이 된다는것이 얼마나 크나큰 영광이고 보람인가를 모두다 다시금 심장속깊이 새기고 또 새겨야 합니다.

친애하는 대의원동지들!

새로운 신심과 기대를 안고 시작한 2023년을 마감지를 시각이 벌써 얼마 남지 않았습니니다.

우리앞에는 벅찬 사변들로 아로새겨진 올해의 마감까지 더 알찬 성과로써 떳떳이 마무리지어야 할 무거운 책임이 나서고있습니다.

사회주의강국건설의 정치적, 물질기술적조건과 토대가 확고하며 핵무력건설에 관한 든든한 법적담보까지 마련한 현재의 유리한 정세하에서 그 실천적성과의 여부는 여기 모인 대의원동지들과 모든 공민들이 어떻게 분투하고 노력하는가에 전적으로 달려있습니다.

나는 이 자리에 참석한 모든 동지들이 위대한 우리 국가의 무궁한 번영과 위대한 우리 인민의 복리를 위하여 당과 혁명, 조국과 인민앞에 지닌 더없이 책임적이고도 무거운 사명과 직책책임무를 충실히 다해나가리라는것을 굳게 믿습니니다.

우리 공화국의 강대한 힘과 위상을 다시금 굳지료이 체감하게 되는 뜻깊은 이 자리에서 나는 모두다 위대한 우리 조국의 강화발전을 위한 성스러운 애국투쟁에 총분기함으로써 올해를 자랑찬 승리의 해로 빛나게 장식하자는것을 열렬히 호소합니다.

위대한 우리 인민을 위하여, 우리 국가의 존엄과 명예를 위하여 모두가 한마음한뜻으로 힘차게 투쟁해나갑시다.

본사기자

행성을 뒤 흔든 조선의 9월

충격과 감격의 연속으로 만민을 격동시킨 조선의 9월이었다.

9월! 조용히 불려만 보아도 장장 75성상의 기나긴 려정에 오직 승리와 영광만을 아로새겨온 남다른 긍지와 자랑으로 가슴부풀어 오르는 9월이다.

공화국이 창건되어 75번째로 찾아온 이 9월에 이 땅의 모든 이들의 가슴가슴을 세차게 흥분시키

고 세인의 이목을 집중시키며 펼쳐진 잊지 못할 순간순간들이 날이 갈수록 거대한 진폭으로 행성을 뒤흔들고있다.

뜻깊은 9월이 저물어가는 이 시각 사람들은 가없이 펼쳐진 맑고 푸른 공화국의 하늘을 바라보며 올해 9월의 날과 날들에 새겨진 불멸의 화폭들을 훑어오르는 격정속에 되새겨본다.

선진해양강국건설대업의 첫 산아

공화국창건 75돐을 하루 앞둔 9월 8일.

이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을 모시고 새로 건조한 잠수함 진수식이 성대히 진행된 소식이 신문과 방송, TV를 통해 전해지자 온 나라가 불도가니마냥 뿔뿔이 뚫어졌다.

공화국의 영웅적인 군수로통계급과 과학자, 기술자들이 자체의 힘과 기술로 진술핵공격잠수함을 건조하여 창건 75돐을 맞는 어머니조국에 선물로 드렸던 것이다.

지금도 사람들은 진수신호가 내리자 전체 참가자들의 감격과 환희를 담은 꽃보라가 터져오르고 고무풍선들이 날아오르는 속에 새로 건조한 신형잠수함이 바다에 떠오르던 려사의 그 순간을 잊을수 없어 외우고 또 외우고있다.

못 잊을 그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는 오늘 진수하게 되는 제841호 《김군옥영웅》함은 우리 해군부대의 핵심적인 수중공격수단의 하나로서 자기의 전투적사명을 수행하게 될것이라고 하시면서 《김군옥영웅》함은 조선로동당과 그의 혁명공업

전사들이 숭고한 리상과 무비의 창조투정으로 출산한 선진해양강국건설대업의 첫 산아이라고 높이 평가하시였다.

선진해양강국건설대업의 첫 산아!

돌이켜보면 지난 조국해방전쟁 시기 창건된지 2년밖에 안되었지만 단 4척의 작은 어뢰정으로 《바다의 섬》이라고 자처하던 미제의 중순양함을 수장시키는 세계대전사에 처음으로 되는 기적을 창조하여 세상을 놀래웠고 장장 70여성상 가없이 넓은 조국의 바다를 지켜싸워온 영웅적조선인민군 해군이다.

그렇듯 영광넘치는 기적과 빛나는 승리만을 아로새겨온 공화국해군부대가 오늘은 선진해양강국건설대업의 첫 산아, 첫 진술핵공격잠수함을 받아안은 려사적인 시각을 맞이하였으니 어찌 사람들이 감격하지 않을수 있랴.

세상을 놀래우는 또 하나의 사변적순간을 맞이한 온 나라인민들은 해군무력강화의 새로운 전성기를 열어나가는 경애하는 원수님께 다함없는 감사의 인사를 드리고드려였다.

공화국인민들과 청년들의 힘을 과시한 대성취추진

공화국인민들 누구나 손꼽아 기다리며 충성의 한마음 안고 달려온 9월의 추진장들마다 차넘치던 끝없는 인민의 환희가 사람들의 마음속에 깊은 여운을 남

기였다. 그중에서도 공화국창건 75돐추진 민방위부력열병식과 청년전위들의 해불야회는 참으로 가슴벅찬 광경이었다.

그날의 광경앞에 세계는 다시금 똑똑히 목격하였다.

령도자의 두리에 하나로 굳게 뭉친 일심단결의 절대적힘을. 세상에 없는 힘이다. 그 어느 나라에도 없고 그 누구도 흉내낼 수도 없는 조선만이 가지고있는 특유의 절대적힘이다.

9월의 열병광장을 진감하며 견결한 조국수호정신으로 만장약된 인민의 발구름소리가 지금도 들려오는것만 같다.

그것은 세계에서 제일 강한 인민의 자랑스러운 발구름이었고 조국앞에 시련의 시기가 닥쳐오면 일어타다에 울리던 혁신의 노래를 원수에 대한 충오의 함성으로 터쳐올리며 원수격멸의 성전에 펼쳐나설 전진항전의 의지가 만장약된 이 나라 인민들의 불타는 맹세의 발구름이었다.

《저 열병대오속에 우리 남편과 아들이 다 서있습디다. 만약 원수들이 지난 조선전쟁때처럼 미제의 중순양함을 수장시키는 세계대전사에 처음으로 되는 기적을 창조하여 세상을 놀래웠고 장장 70여성상 가없이 넓은 조국의 바다를 지켜싸워온 영웅적조선인민군 해군이다.》

《세상에서 제일 강한 우리 군대결에 세상에서 제일 강한 우리 인민이 서있는데 그 무한대한 힘을 과연 어느 누가 당해낼수 있겠습디까. 보면 볼수록 힘이 솟고 승리의 신심이 백배해집디다.》

이렇게 터치던 목소리에 이 나라에 태를 묻은 남녀로소모두의 마음이 어려있었다.

경축의 그밤 길일성광장을 불의 바다로 뒤덮었던 청년전위들의 해불야회는 또 얼마나 장엄하고 장쾌한 열병행진이었던가.

인민의 이름으로 빛나는 나라에서 인민의 꿈을 이루어가는 람홍색조국의 필력인사리를 들으며 자라난 이 나라의 청년들. 그들이 손에손에 주켜들었던 이끌거리는 해불은 그대로 그들의 가슴마다에 차넘치는 충성의 마음, 애국의 마음의 분출이었으며 경애하는 원수님따라 이 세상 끝까지 달려갈 추진한 기세였다. TV화면에 펼쳐지는 《계승자》,

《우리는 청춘》, 《빛나는 조국》, 《태양조선》, 《절세의 영웅》, 《일심단결》, 《인민의 나라》, 《애국청년》, 《결사관철》 등 새겨지는 장엄한 글말마다에서 세인은 절세위인의 품속에서 청춘

절세위인에 대한 한없는 그리움의 낮과 밤

9월 12일 신문과 방송, TV를 통하여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로씨야런방을 방문하시기 위하여 9월 10일 오후 전용차로 평양을 출발하시였다. 소식을 전해진 때로부터 온 나라 인민들은 머나먼 외국방문의 길에 오르신 원수님께서 안녕히 돌아오실 날만을 손꼽아 기다리였다.

조선로동당 총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장인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9월 12일 새벽 로씨야런방의 국경도시 하산에 도착하시였다.

조선로동당 총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장인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로씨야런방 원동지역의 주요공업도시인 콤포스스크-나-아무레시에 도착하시어 유.아.가가린명칭 콤포스스크-나-아무레비행기공장을 참관하시였다.

메일메일 전해지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혁명활동소식을 들으며 령도자에 대한 한없는 그리움으로 불타는 한초한초, 하루하루가 이 땅에 흘렀다.

가는 곳마다에서 경애하는 원수님의 안녕을 바라고바라는 인민들의 목소리를 들을수 있고 만나는 사람들마다 그이에

를 빛내이는 이 나라 청년들의 밝은 모습을 보았고 령도자의 두리에 일심단결된 청년전위들의 불패의 힘을 더욱 절감할수 있었다. 그 힘으로 공화국은 영원히 백승만을 펼쳐갈것이다.

선진민적인 애국열로 끌어낸 9월

대한 끝없는 그리움으로 눈물을 뜨겁게 적시며 보다 큰 사업성과로 보답할 맹세로 심장을 끓이였다.

공화국인민들에게 있어서 경애하는 원수님은 순간도 떨어져 살수 없는 운명의 태양이다. 언제나 해빛같이 환한 미소를 지니시고 온 나라 인민들을 따사로온 넓은 품에 안아 보살펴 주시고 사랑에 사랑을 더해주시는 경애하는 원수님, 그이의 손길을 놓으면 삶의 전부를 잃게 되

는 더욱 세차게 타올랐다. 사회주의애국단결투쟁의 기치를 남먼저 주켜든 개천지구단결투쟁기업소 자강도공공단광의 일군들과 로동계급의 뒤를 따라 구장지구단결투쟁기업소 청년들까지 애국열로 불붙을 더욱 세차게 지펴올리였다.

김정숙평양제사공장의 2년분계 획관수자들이 서로 돕고 이끌면서 위훈창조의 앞장에서 계속 힘차게 내달리였다. 이들만이 아니라 김정숙평양방직공장, 구성방직공장을 비롯한 방직공업부문의 수많은 혁신자들도 자기 정장의 2배, 3배이상의 기대를 맡아 2년분, 년간인민경제계획을 앞당겨 수행하기 위해 뛰고 또 뛰였다.

나미전에는 군수공업, 기계공업 부문 공장, 기업소에서 생산한 각종 수확기, 탈곡기, 파종기를 비롯한 1만여대의 농기계를 가 올건기와 탈곡, 가을밀, 보리씨뿌리기로 들끓는 농장들에 집중수송되였다.

우리 공화국인민들처럼 크나큰 영광과 행복속에 사는 인민은 없다. 나의 아버지도 절세 위인들의 하늘같은 사랑과 믿음속에 더없는 영광과 행복을 누리며 해군을 빛낸 내인 사람들중의 한사람이다.

얼마전 공화국 창건 75돐을 하루 앞둔 날이였다. 아침에 《로동신문》을 펼쳐 들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을 모시고 새로 건조한 잠수함 진수식이 성대히 진행된 것을 보다가 가슴을 울려대었다. 그때부터 나는 보도기사를 읽으면서 나는 숫자쳐오르는 격정으로 눈물을 적시였다.

보도문의 글줄을 읽어내려갈수록 나의 가슴은 흥연할수 없는 감동과 격정으로 더욱 끓어번지고 심장은 세차게 뛴뛰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아버지의 이름을 거듬거듬 불러 주신것이였다. 벌써 한달도 못되는 사이에 세번씩이나 나의 아버지의 위훈을 값높이 평가해주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이시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지난 8월 오동흥7대대정호를 수여받은 조선인민군 해군 동해함대 근무 제2수상함대를 시찰하시면서 우리 해군의 빛나는 전투행로에 불휘하여 주문전해상전투에서 승리를 이룩하는데 결정적역여를 한 제2어뢰정대 정대장과 2발의 어뢰를 다 명중시켜 적중순양함을 격침시키는 데 크게 기여한 제22호어뢰정 정장에게 공화국영웅호를 수여하겠다고 하시며 아버지의 가슴에 금별메달을 달아주시고 온 세상이 다 않도록 내세워주시였다.

아버지는 생전에 자기의 인생행로를 돌이켜보면서 사람들은 나를 보고 세계대전사의 기적을 창조하였다고 말하곤 하는데 사실 그 기적의 창조자는 우리 수령님이시고, 수령님께서 가르쳐주신 대로 싸웠기에 세상을 놀래우는 기적을 창조할수 있었다고 말하곤 하였다.

아버지에게 베풀어 주신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의 사랑과 믿음은 또 얼마나 가슴뜨거운것이었던가. 위대한 장군님의 한없는 사랑과 믿음에 의하여 아버지는 숨이 지는 마지막순간

까지 전승세대의 영웅정신을 후세대의 가슴마다에 심어주는 조국해방전쟁승리기념판 조각수 조각을 끝내는 생의 나날을 보낼수 있었다.

그런데 오늘은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자기의 아들로서 나라를 지키는 싸움에서 응당 해야 할 일을 한 아버지를 잊지 않으시고 영광의 최정정에 올려세워주시였다.

정말 절세위인들의 하늘같은 사랑과 믿음에 의해 아버지는 값없는 영생의 삶을 누리고있다. 아버지가 받아안은 크나큰 사랑과 믿음, 그것은 결코 아버지 일개인이 받아안은 사랑과 믿음이 아니다. 우리 온 집안, 아니 전승세대의 후손들이 받아안은 무상의 영광이고 행복이다.

우리 김군옥영웅을 위대한 그 사랑, 그 믿음을 언제나 심장에 새기고 아버지가 그러했던 것처럼 수령을 위하여,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모든것을 다 바치는 열혈충신, 참된 애국자들로 한생을 빛내이겠다.

김해림 (김군옥영웅의 아들)



《복받은 대지!》
풍요한 가을을 맞이한 안변군 월랑농장의 근로자들이 농장벌에 깃든 뜨거운 사연과 가슴속에 고매치는 격정을 세상에 전하고자 풍작이론 포전에 크게 새긴 글밭이다.

지금 안변군 오계농장과 월랑농장의 침수되었던 포전들에 펼쳐진 풍년작황은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애국헌신의 로고와 심혈이 안아온것이다.



벌리도록 조치를 취해주시였다. 그러시고도 마음이 놓이지 않으시어 아직 큰물이 찌지 않은 복구현장을 찾으시고 피해를 시급히 가시기 위한 방안들도 밝혀주시며 피해복구사업을 몸소 지도하여

이 뛰어들어 헌신적인 투쟁을 벌린 결과 빠른 시간내에 강하천제방복구가 성과적으로 끝나게 되었다.

최대한 농작물을 보호하고 알곡수확고에 영향이 미치지 않도록 시급히 영양관리대책이 세워지고있다.

침수피해를 받았던 땅에 만년된 가을을 안아오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위대한 헌신을 전하고자 이곳 농장원들은 월랑농장의 포전에 《복받은 대지》라는 글밭을 크게 새기였다.

복받은 대지가 어제 오계농장과 월랑농장의 포전들만이라고 하랴. 경애하는 원수님의 탁월한 령도에 의해 온 나라의 전야가 황금이사 물결치는 복받은 대지로 되었다.

김철진

우리 공화국인민들처럼 크나큰 영광과 행복속에 사는 인민은 없다. 나의 아버지도 절세 위인들의 하늘같은 사랑과 믿음속에 더없는 영광과 행복을 누리며 해군을 빛낸 내인 사람들중의 한사람이다.

얼마전 공화국 창건 75돐을 하루 앞둔 날이였다. 아침에 《로동신문》을 펼쳐 들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을 모시고 새로 건조한 잠수함 진수식이 성대히 진행된 것을 보다가 가슴을 울려대었다. 그때부터 나는 보도기사를 읽으면서 나는 숫자쳐오르는 격정으로 눈물을 적시였다.

보도문의 글줄을 읽어내려갈수록 나의 가슴은 흥연할수 없는 감동과 격정으로 더욱 끓어번지고 심장은 세차게 뛴뛰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아버지의 이름을 거듬거듬 불러 주신것이였다. 벌써 한달도 못되는 사이에 세번씩이나 나의 아버지의 위훈을 값높이 평가해주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이시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지난 8월 오동흥7대대정호를 수여받은 조선인민군 해군 동해함대 근무 제2수상함대

를 시찰하시면서 우리 해군의 빛나는 전투행로에 불휘하여 주문전해상전투에서 승리를 이룩하는데 결정적역여를 한 제2어뢰정대 정대장과 2발의 어뢰를 다 명중시켜 적중순양함을 격침시키는 데 크게 기여한 제22호어뢰정 정장에게 공화국영웅호를 수여하겠다고 하시며 아버지의 가슴에 금별메달을 달아주시고 온 세상이 다 있도록 내세워주시였다.

아버지는 생전에 자기의 인생행로를 돌이켜보면서 사람들은 나를 보고 세계대전사의 기적을 창조하였다고 말하곤 하는데 사실 그 기적의 창조자는 우리 수령님이시고, 수령님께서 가르쳐주신 대로 싸웠기에 세상을 놀래우는 기적을 창조할수 있었다고 말하곤 하였다.

아버지에게 베풀어 주신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의 사랑과 믿음은 또 얼마나 가슴뜨거운것이었던가. 위대한 장군님의 한없는 사랑과 믿음에 의하여 아버지는 숨이 지는 마지막순간

까지 전승세대의 영웅정신을 후세대의 가슴마다에 심어주는 조국해방전쟁승리기념판 조각수 조각을 끝내는 생의 나날을 보낼수 있었다.

그런데 오늘은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자기의 아들로서 나라를 지키는 싸움에서 응당 해야 할 일을 한 아버지를 잊지 않으시고 영광의 최정정에 올려세워주시였다.

정말 절세위인들의 하늘같은 사랑과 믿음에 의해 아버지는 값없는 영생의 삶을 누리고있다. 아버지가 받아안은 크나큰 사랑과 믿음, 그것은 결코 아버지 일개인이 받아안은 사랑과 믿음이 아니다. 우리 온 집안, 아니 전승세대의 후손들이 받아안은 무상의 영광이고 행복이다.

우리 김군옥영웅을 위대한 그 사랑, 그 믿음을 언제나 심장에 새기고 아버지가 그러했던 것처럼 수령을 위하여,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모든것을 다 바치는 열혈충신, 참된 애국자들로 한생을 빛내이겠다.

김해림 (김군옥영웅의 아들)



암흑에서 찾은 광명의 참세상입니다

9월의 하늘가에 이 나라 인민의 꿈과 리상이 실린 람홍색국기들이 세계를 필적합니다.

75년의 만단사연을 전하는 람홍색기복들을 바라보느라니 저 국기아래 홀리는 나의 길지 않은 후반생이 삼삼히 들어켜집니다.

내가 40년간의 굴절 많은 과반생이 얽힌 암흑의 괴뢰사회와 결별하고 공화국의 품에 안긴지도 어언 서른세해가 흘렀습니다.

불모의 땅에서의 40년

인생은 꿈이 있어 아름답습니다. 꿈이 없는 인생은 목적없는 항해처럼 무의미하며 리상을 실현하려면 거기에 운명을 걸어야 한다는것이 나의 인생지론이었습니다.

하지만 생활은 운명을 걸고서도 이룰수 없는것이 꿈이라는것을 깨우쳐주었습니다.

원래 내 생의 뿌리는 여기 공화국 땅에 있었습니다.

내가 태어난 강원도 철원군은 고구려 때부터 철이 나는 고장이라 하여 철원으로 불리워온 오랜 역사를 가진 고을이었습니다.

그런데 8.15해방과 함께 국도분령의 희생물로 될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내 고향 보막리에서 멀지 않은 남쪽으로 그 존재조차 알지 못했던 38°선이 지나가면서 철원지역이 북과 남으로 갈라졌던것입니다.

38°선 남쪽에서 악명높은 미군정이 실시되고있을 때 우리 마을에서는 민주개혁의 불씨가 흘러넘치고 김일성장군님께서 주신 땅에서 농사를 짓는 마을사람들의 행복의 웃음소리가 그칠줄 몰랐습니다.

내가 3살 나던 해에는 그 이름도 자랑스러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창건되어 자주독립국가의 첫 공민으로 된 고향사람들의 환희와 만세소리가 온 골안을 진감하였습니.

하지만 만세가 곧 신념의 표현은 아니었습니다. 신념이 없으면 자기 보금자리도 지켜낼수 없다는것을 우리는 그후의 쓰라린 체험을 통하여 똑똑히 알았습니다.

지난 조국해방전쟁시기 미제는 일시적으로 강행한 공화국북반부지역에서 작겨가면서 원자탄사운을 운운하며 작성되지 못한 인민들을 위협하였습니다.

그것이 공화국정권으로부터 인민들을 때려부리 위한 술책임을 알려 없던 나의 부모들은 며칠밤을 뒤척이다가 공화국에 대한 신념이 확고치 못한탓에 자신들을 데리고 남쪽으로 숨기도주하는 운명을 범하였습니.

그때 내 나이는 겨우 5살이었습니다. 정전후 우리 마을 남쪽산기슭을 가로지른 군사분계선때문에 고향으로 돌아갈수 없게 된 우리 가족은 할수없이 정든 향촌이 바라보이는 경기도 포천군에 눌러앉고말았습니다.

이렇게 나는 행운이 기약되어있던 고향땅을 버리고 운명의 광풍에 휘말려 불모의 땅에 휘부러진 불행한 세상이었습니다.

암울한 세상일수록 꿈은 더욱 소중합니다. 그 희미한 등불마저 없다면 우리처럼 돈없고 힘없는 인생들이 살아나갈 용기조차 낼수 없었을것입니다.

생전에 나의 아버지는 일년지계라편 곡식을 심고 십년지계라편 나무를 심으며 평생지계라편 사람을 돌보고 가르치야 한다는 말을 자주 외웠습니다. 그래서인지 나는 어려서부터 영동한 생각으로 자주 집식구들을 불러우곤 하였으며 생활고에 시달리며 장사일에 바빠 돌아가는 형님들을 보면서 돈만 아는 인간이 되지 않으리라 속다짐하였습니다.

고등학교졸업후 폐회군살이를 마치고 돌아온 23살의 학기방장한 나는 부조리한 사회에 도전하는 심정으로 초선년들을 위한 자신학교를 세울 대담한 목표를 세웠습니다.

부지막지한 군사독재하에서 사회주의 국가에서나 가능할 리상실현에 나선것부터가 일종의 객기였으나 어쨌든 부패한 괴뢰교육제도에 대한 일대 《선전보고》로 될 나의 대담을 실현하고자 보나 첫째도 둘째도 걸린것이 아니었습니다.

나는 어머니에게 도움을 청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자 어머니는 험악한 상상에서 제 돈으로 남의 아이들을 공부시키려는 나의 리상을 대번에 망상으로 치부하며 거절하였습니다. 나중에는 나의 끈질긴 설득에 못이겨 나의 세간만 배움으로 지옥하였던 예금통장을 꺼내 놓으면서 자금이 떨어지면 다시는 돈을 탈레지 말라고 맹정하게 선을 그었습니다.

라향에서 일찌기 난관을 뒹고 홀몸으로 6남매를 키우며 피나게 모은 밑천을 아들의 허망한 망상에 밀어넣고 한숨짓던 어머니의 정상이 아직도 눈에

조국통일상수상자 교수 박사 정규진

40년과 33년. 한 인간의 서로 다른 인생사가 실린 두갈래의 세월이었습니다. 만일 이제 다시 나에게 두 인생길중 어느 하나만을 선택하라고 한다면 나는 주저없이 33년을 택할것입니다. 그것은 생의 가치나 보람이 결코 넉넉이 있는것이 아니기때문입니다.

행복의 년륜으로

자신학교의 운영으로 일정하게 명성을 얻은 나는 1978년 5월 《통일주체국민회의》 대의원선거에 출마하였습니다. 《통일주체국민회의》란 당시 박정희역도가 장기집권을 위해 꾸민 어용도구로서 《대통령》을 직접선거가 아니라 2 500여명의 대의원들이 투표하는 간접선거의 방법으로 뽑기 위한 꼭두각시구였습니다.

나는 어용기구의 불순한 목적보다 당시 위세가 당당한 《통일주체국민회의》 대의원신분에 현혹되어 그것을 이용하여 대의원과야 파쇼악법체와 같은 사회적활동에 유리할것으로 타산하고 학부형들과 군내주인들의 지지를 받아 33살의 젊은 나이에 대의원으로 당선되었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정반대로 끝났습니. 내가 《통일주체국민회의》 대의원으로 서 야당계인물들과 접촉하고 악법철폐 투쟁을 벌여나가자 괴뢰당국과 《공화당》, 경찰서장패들은 2층3층으로 압력을 가하다 못해 나중에는 우리 학교를 강제폐교시키는 파쇼적폭거를 감행하였습니다.

얼두번째 졸업식을 마감으로 학교의 문을 닫던 날 나는 사랑하는 제자들과 교직원, 학부형들과 함께 군사파쇼도당을 끌없이 저주하며 피눈물을 흘렸습니.

나의 첫 꿈은 이렇게 참혹하게 짓밟혔습니. 그후 《통일주체국민회의》 대의원을 사퇴한 나는 민주사회당 지구당 위원장을 거쳐 11대 《국회》의원선거에도 나서보았으나 당국의 집요한 탄압으로 중도에서 정치적리상을 완전히 포기하고 경제계와 체육계를 전전하며 중진노릇도 해보았습니다.

하나 어디 가나 자선과 인도주의를 표방하는 나의 리상이 맹대를 받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썩어빠진 미국식가치관과 철저한 반공리념에 기반하였는 괴뢰지역의 기형적이며 반동적인 체제하에서는 1%도 안되는 특권층들과 재벌들만이 저들의 부패라학한 욕구를 채워이 만족시킬수 있을뿐 절대다수 근로인민들에게는 초보적인 정치적자유와 권리, 생존의 요구도 실현될수 없었던 것입니다.

《살기도 힘든 세상에 꿈은 무슨 꿈》이라고 하던 형님들의 말이 생각났습니. 부지중 나의 입에서는 아버지가 즐겨 부르던 구슬픈 곡조가 흘러나왔습니다.

문패도 번지수도 없는 주막에 낫은비 내리는 이밤도 예절구려...

불러보니 신중히도 번지없는 내 인생을 노래하는것만 같았습니다. 하지만 인간은 살아있는 한 절대로 희망을 잃어서는 안된다고 한 어느 철학자의 말처럼 나는 목숨을 버리면 버졌지만 희망은 포기할수 없었습니다.

아직은 그것이 무엇인지 다는 알수 없었지만 나의 마음 한구석에는 언제부터인가 암야의 초물처럼 희망을 주는 한줄기 빛이 있었습니다.

경기도 포천군 영북면 산정리에 가면 《산정호수》라고 부르는 크지 않은 인공호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조선식기와를 엮은 수수한 집 한채가 있는데 사람들은 그 집을 《태양별장》이라고 불렀습니. 그것은 해방후 김일성장군님께서 이곳(전경전 공화국북반부지역)에 찾아오시어 농민들과 허물없이 마주앉으시어 호수를 효과적으로 리용하여 농사를 잘 지을데 대하여 가르쳐주시고 38°선미제의 식민지통치에서 신용하는 인민들의 처지를 두고 몹시 가슴아파하신 이야기에서 유래된 이름이었습니다.

《태양별장》에 깃든 사연을 전해들은 후부터 나의 뇌에는 어머니수령님의 위인상이 깊이 새겨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신학교를 운영할 때 과외수업의 명목으로 자주 그곳에 학생들을 데리고 나가 《태양별장》에 대한 이야기도 들려주고 주변에 나무와 꽃도 심고 가꾸면서 민족의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과 떠나는 고향에 대한 향수를 달래곤 하였습니다.

그리고 평양방송과 공화국의 소식에 더 자주 귀를 기울이면서 공화국에 펼쳐진 인민의 리상사회를 눈앞에 그려보았습니다. 그럴수록 공화국현실을 내 눈으로 직접 확인해보고싶은 욕망과 함께 위대한 수령님의 정치가 꽃피는 해빛밝은 세상에서 진정으로 인간답게 살고싶은 강렬한 충동을 금할수 없었습니다.

그러던 1989년 《전민련》 고문 문익환목사와 《전대협》대표 림수경이 련이어 평양을 방문하고 어머니수령님을

행복의 년륜으로 아로새겨진 33년

사람의 일생에서 제일 행복한 순간은 자기의 꿈과 리상이 이루어지는 때인거다 봅니.

공화국에로의 의거입국은 내 인생에서 단순한 방향전환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인간의 리상이 참담게 실현되는 세 세계의 대문을 연 중대한 사변이었습니다.

듣던바대로 공화국은 정말 볼수록 매력적이고 알수록 더욱 수수께끼같은 나라였습니다.

공화국에 들어서면서 내가 처음으로 받은 강렬한 인상은 평양시업구에 나붙은 구호 《우리 식대로 살아가자!》였습니다. 공화국정치의 자주적특징이 간결하게 응집된 구호를 보는 순간 오랜 세월 막혀있던 가슴이 쟁 열리는것만 같았습니다.

괴뢰당국자들은 결집하면 공화국정치를 《폐쇄정치》라고 헐뜯으면서 저들의 사대배정치는 《열린 정치》, 《실용정치》로 미화하고있습니.

정치에서 자주, 경제에서 자립, 국방에서 자위의 원칙을 생명으로 간주하는 나라, 단 한명의 외국군대나 외국군사기도 없고 거리와 상점들은 외국어가 아닌 아름다운 우리 말로 단장된 주체가 된 나라.

이런 나라를 《폐쇄적》이라고 헐뜯는것은 결국 세계가 선망하는 자주강국에 대한 극도의 멸등감에 사로잡힌자들의 치졸한 양탄질에 지나지 않는것이었습니다.

공화국현실에서 내가 제일 놀란것은 당과 국가가 인민들의 운명과 생활을 전적으로 책임지고 보살펴주는것이었습니다.

세계의 그 어떤 부유한 나라도 직업, 주택, 교육, 보건에 대한 인민들의 요구와 부담을 국가가 감당할 엄두조차 내지 못합니. 그런데 국민총생산액이 그들과 비교도 안되는 공화국에서 그러한 리상적인 정치를 실현하고있다는것이 한뉘 자본주의세계에서, 그것도 《동족대결론》과 《동족협오론》을 바탕으로 붙어대는 반공세계에서 살아온 나로서는 선뜻 리해하기 어려웠습니.

결국 모든것을 자본주의자막대기로 재어보는데 습관된 나는 가는 곳마다 사람들의 웃음거리로 될수밖에 없었습니다.

학교에 가서는 어린 학생들에게 세금을 아는가고 물었다가 《우리 학교에는 세금, 가야금, 목금은 있어도 세금은 없습니.》라는 왕창같은 대답이 튀어나와 모두를 웃기였고 안해가 평양산원에서 피원할 때에는 수술비가 얼마인가고 물었다가 의사선생들을 아연케 하였습니. 내가 진지한 태도로 문제를 제기할수록 사람들은 나를 신기하게 쳐다보며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사실 경우를 따지면 쌀값과 집값, 치료비, 교육비와 같은 초보적인 생계비조차 모르고 사는 사람들을 내가 더 이상히 여겨야 할것이였으나 그들은 웅당 알아야 할것도 모르고 지내는 데

만나보은 소식은 나에게 큰 힘을 주었습니다.

나는 마침내 온갖 번거로운 상념을 털어버리고 인생전환의 대응단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비록 청춘의 열기도 다 지나고 인생의 저물녘에 들어선 중년기였지만 더이상 저주로운 땅에서 여생을 덧없이 허비하고싶지 않았습니.

사랑하는 어머니와 처자, 형제들의 얼굴이 무시로 눈앞에 떠오르며 발목을 붙잡았지만 이 길이 나와 어머니, 겨레의 소망과 념원을 실현하는 길이라는 생각으로 결심을 굳혔습니.

1989년 10월중순 나는 눈에 뜨이지 않는 관광객차원으로 성공을 기약할수 없는 북행길에 올랐습니. 내 인생에서 두번째로 운명을 건 인생전환의 꿈이 실린 초행길이었습니다.

머나먼 유럽땅을 돌고있어 10여일간의 긴장한 려정끝에 드디어 공화국에 들어서는 순간 눈물이 펄 돌았습니다. 다섯살때 9살짜리 누나의 등에 업혀 독란구멍이를 에둘며 고향을 떠났던 철원군의 산골마을 초동은 근 40년만에야 중년의 객이 되어 어머니조국에 다시 안겼습니.

나는 흐르는 눈물속에 어머니를 불러보았습니다.

《어머니! 어머니가 꿈결에도 오고싶던 공화국에 구진이가 왔습니. 저 혼자 온것을 용서해주세요. 어머니!》

맑고 푸른 하늘에서는 눈부신 태양이 따사로운 해살을 뿌리며 암흑의 동토대에서 얼어든 나의 온몸을 포근히 감싸주고있었습니다.

행복의 년륜으로 아로새겨진 33년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평생념원과 인민의 세기적속망이 어린 사회주의강국의 눈부신 리상은 오늘 김정은시대와 더불어 찬란한 현실로 펼쳐지고있습니다.

우리 나라를 그 누구도 건드리지 못하는 천하제일강국으로!

우리 인민을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인민으로!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이렇게 자신의 리상을 온 누리에 선포하시고 위대한 수령님들께서 마련해놓으신 자주강국의 반석우에 세계가 알지 못하는 절대강국의 실체를 불과 10여년어간에 이처럼 빠른 속도로 쌓아올리셨습니다.

지나온 10년을 돌이켜볼수록 가슴에 새겨지는 진리가 있습니다.

《꿈에도 인간의 신명과 의지가 비껴나. 그래서 강자와 약자의 꿈은 서로 다름니다. 강자는 언제나 이기는 꿈을 꾸지만 약자는 비겨도 천만다행이라도 자제위안하는것입니다. 강자는 자기 힘을 믿지만 약자는 남의 힘을 쳐다보기때문입니다. 결국 리상은 강자의것이요 절망은 약자의것입니다.》

지금도 정승 70돏경축 열병식장에 헤일처럼 격랑을 일으킨 그 세찬 충격과 감격의 순간을 잊을수 없습니다.

100% 우리의 기술과 힘, 우리 식으로 완성된 최첨단전략무력이 제국주의목제의 종말을 선고하며 굴이쳐나가던 그 순간이야말로 우리 민족이 오랜 세월 품어온 반만년의 꿈, 부국강병의 숙원이 가슴후련히 풀려나가는 장쾌한 순간이었습니다.

나는 공화국의 그 미더운 행복들이 70년전 미제의 원자탄위협에 쫓겨 정든 고향을 등지고 사랑하는 혈육들과 생리별을 당해야만 했던 나의 부모들과 이 나라 수천만사람들의 가슴속에 쌓이고 맺힌 원한의 눈물을 씻어주는것만 같아 눈시울이 젖어들고 뚝뚝아 웨치고있었습니다.

결코 순탄한 길은 아니었습니다. 고향에 우리 인민은 병진의 혈로에서 거이어 백년, 천년의 영원한 평화와 번영을 약속시키기 위해 사선결에도 주저없이 나서고 상상을 초월하는 고행도 달게 여기며 해쳐오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열사부부의 헌신과 로고에 삼가 경건한 감사의 인사를 드리는것입니다.

세상이 우리 원수님처럼 인민들의 꿈과 리상을 소중히 여기시고 그것을 현실로 만들어 주신 평등자는 없습니.

버섯장광에 가시면 우리 나라를 버섯의 나라로 만들고 백리파원에 가시면 우리 나라를 과수의 나라로 만들며 가까운 앞날에 세상이 부러워하는 과학기술강국, 인제강국, 우주강국, 체육강국으로 만드실 용대한 설계도를 끝없이 펼쳐가십니다.

우리 원수님의 교육관은 어린이들에게, 인민에 대한 가장 열렬한 사랑에 기초하고있습니다.

자본주의세계에서는 교육이 철저히 리움을 위한 자본시장으로서 자본가는 리움을 위해 투자하고 자신가는 공명

는 숭고한 인생관과 후대관을 지니시고 장군님은 전선으로, 아이들은 야영소로 가는 나라, 천만군민이 위대한 장군님만 계시면 반드시 이긴다는 신념을 절대불변의 진리로 간직하고 단순히 시련의 인덕을 넘기 위해서가 아니라 장군님께서 가리키신 부강번영할 미래를 향하여 산악같이 일떠선 나라, 이런 나라에 실사 자연의 재난은 밀려올수 있어도 그 어떤 좌절이나 붕괴의 재변이란 있을수도, 상상할수도 없다는것을 나는 그때 온몸으로 체험하였습니다.

미국과 적대세력들은 오늘도 최첨단정찰위성을 비롯한 각종 수단과 방법을 총동원하여 공화국에 대한 파렴치한 정찰행위와 정밀분석에 집요하게 매달리고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되어 공화국이 극한의 위기에서도 몰락하지 않고 번영으로의 꿈을 안고 더 높이 비약할수 있었는지, 압박하면 할수록 더욱 강고해지는 공화국의 생존력과 불패성의 원천이 어디에 있는지 끝내 밝히지 못하고 실재한 적대시정책만 답습하고있습니다.

단언하건대 미국식가치관으로는 절대로 인민대중중심의 사회주의라는 인류사적대체를 리해할수 없으며 공화국을 알려면 주체사상부터 알고 그 과학성과 진리성을 인정해야 합니다.

나는 시련속에서 찾은 진리를 안고 천국의 학교와 마을, 공장과 농어촌들을 찾아갔습니. 사람들에게 나의 인생체험과 교훈을 통하여 공화국의 귀중함을 더 잘 알고 나의 리상이며 우리모두의 운명인 부강조국건설에 예극의 구슬땀을 아낌없이 바칠것을 열렬히 호소하였습니다.

그 저력은 말이 한 나라 국가수반의 저력이었지 자신에게는 크고 화려한 집보다 소박하고 아담한 집이 더 좋다고 하는 어머니수령님의 엄격한 요구에의 하여 오늘의 다락식주에 만족보다 더작게 지어진 수수한 집이었습니다.

그러네 바로 그곳, 위대한 수령님의 저력자리에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평범한 인민들을 위한 새로운 주택수를 짓도록 하시였을 때 나도, 온 나라 인민도 자기의 눈과 귀를 의심하지 않습니.

언제인가 북부파해복구전투때 나라에서 지어주는 새집이 너무 부러워 자기 집을 재산으로 허물어버린 주민에게까지 새집을 안겨주시였고 큰물피해를 입은 황해북도 은과군 대청리마을을 새로 지어주실 때에는 1동1세대를 바라는 농장원들의 《욕심》도 탕하지 않으시고 그들의 요구대로 집을 지어주도록 하신 자애로운 원수님.

오늘은 위대한 수령님의 술embra 체취가 어려있는 터전에 인민의 호화주택을 일떠세워주시고 아마도 우리 수령님께서 자신의 주택이 철거된 대신 그 동안에 예측자, 공로자들의 행복년 친 보급자라가 마련된것을 아시던 만족해하실것이라고, 한생도록 것처럼 사랑하신 인민을 따듯이 품어안으신것같아 정말 기뻐하실것이라고 절절히 말씀하시니 동서고금을 왕궁을 짓기 위해 백성들의 집을 허문 전례는 있어도 수령의 저력자리에 인민들의 살림집을 짓는 일은 오직 인민을 하늘처럼 섬기는 우리 공화국에서만 있을수 있는 인민사랑의 진실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인민을 누구나도 경애하는 원수님의 존함만 들어도 눈물겹고 언제나 원수님에 대한 이야기로 꽃을 피우며 꿈을 꾸어도 원수님에 대한 꿈을 품니.

학교에 가면 아이들이 어저밤 꿈속에서 학교에 찾아오신 아버지원수님을 만나보은 꿈이이기도 나누고 발전조건설장에 가면 꼭잡에 든 돌격대원이 꿈결에 원수님을 만나보는 꿈을 꾸다가 단잠을 깨운 동무에게 화를 낸 이야기도 들을수 있습니다.

잠결에도 경애하는 원수님의 품에 안겨드는 인민들, 섯소소를 떠나시는 원수님을 따라 차디찬 바다물에 뛰어들고 이 세상 끝까지 가고싶 불라는 그리움을 안고사는 천만군민의 가슴속에 고통치는 하나의 간절한 념원은 경애하는 원수님의 안녕과 건강입니다.

평등자와 인민이 사랑과 정으로 통하는 나라, 평등자는 인민의 리상을 위해, 인민은 평등자의 구상을 실현하기 위해 기쁨도 슬픔도 함께 나누며 찬란한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공화국이야말로 그 어떤 천지풍파에도 흔들림없고 그 어떤 대적도 넘볼수 없는 천하제일강국, 리상형의 강국이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내가 암흑속에서 찾은 광명의 참세상, 인민의 꿈이 꽃피는 나라입니다.

과 또 다른 부가치를 위해 투자합니다. 내가 50여년전 괴뢰지역에서 유괴피아적인 환상에 사로잡혀 자신학교를 세운것도 돈없는 아이들에게 초보적인 교육이라도 주어 그들이 비참한 인생길에 들어서지 않도록 하려는 자선적목적과 함께 그것으로 일정한 사회적명성을 얻으려는 욕망도 있었음을 부인할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주제103(2014)년 6월 평양에유옥된 찾아오시어 원아들을 잘 키워 앞으로 이들속에서 이름난 과학자, 체육인, 예술인, 군인도 나오고 영웅도 나오게 해야 한다고 말씀하시였습니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말씀에 접하면서 나는 한때나마 자신을 량심적인 교육자로 자부해온 지난날이 더없이 부끄러웠습니.

평양시 5만세대 살림집건설은 우리당이 크게 버리고 준비해온 숙원사업이라고 하시며 나라가 최약의 시련을 겪는 속에서도 해마다 1만세대이상의 살림집건설을 제1차적인 중요정책과제로 내세우시고 추진하시는 경애하는 원수님.

꿈가 너적하고 돈이 남아나서 하는 일이 아닙니다. 자본주의에서처럼 주택건설과 부동산시장의 활성화로 인한 경제적리득을 추구하는것은 더더욱 아닙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살림집문제는 우리 인민들이 제일 관심하는 문제이며 사회주의제도의 혜택을 직접 배부르 느끼게 하는데서 일차적인 문제라고 할수 있다고 하시면서 우리 나라를 살림집문제를 제일먼저 해결한 나라로 만드실 원대한 구상을 펼쳐시켰습니.

우리 집에서 멀지 않은 보통강반에는 원래 어머니수령님의 옛 저택이 자리잡고있었습니다.

그 저택은 말이 한 나라 국가수반의 저력이었지 자신에게는 크고 화려한 집보다 소박하고 아담한 집이 더 좋다고 하는 어머니수령님의 엄격한 요구에의 하여 오늘의 다락식주에 만족보다 더작게 지어진 수수한 집이었습니다.

그러네 바로 그곳, 위대한 수령님의 저력자리에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평범한 인민들을 위한 새로운 주택수를 짓도록 하시였을 때 나도, 온 나라 인민도 자기의 눈과 귀를 의심하지 않습니.

언제인가 북부파해복구전투때 나라에서 지어주는 새집이 너무 부러워 자기 집을 재산으로 허물어버린 주민에게까지 새집을 안겨주시였고 큰물피해를 입은 황해북도 은과군 대청리마을을 새로 지어주실 때에는 1동1세대를 바라는 농장원들의 《욕심》도 탕하지 않으시고 그들의 요구대로 집을 지어주도록 하신 자애로운 원수님.

오늘은 위대한 수령님의 술embra 체취가 어려있는 터전에 인민의 호화주택을 일떠세워주시고 아마도 우리 수령님께서 자신의 주택이 철거된 대신 그 동안에 예측자, 공로자들의 행복년 친 보급자라가 마련된것을 아시던 만족해하실것이라고, 한생도록 것처럼 사랑하신 인민을 따듯이 품어안으신것같아 정말 기뻐하실것이라고 절절히 말씀하시니 동서고금을 왕궁을 짓기 위해 백성들의 집을 허문 전례는 있어도 수령의 저력자리에 인민들의 살림집을 짓는 일은 오직 인민을 하늘처럼 섬기는 우리 공화국에서만 있을수 있는 인민사랑의 진실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인민을 누구나도 경애하는 원수님의 존함만 들어도 눈물겹고 언제나 원수님에 대한 이야기로 꽃을 피우며 꿈을 꾸어도 원수님에 대한 꿈을 품니.

학교에 가면 아이들이 어저밤 꿈속에서 학교에 찾아오신 아버지원수님을 만나보은 꿈이이기도 나누고 발전조건설장에 가면 꼭잡에 든 돌격대원이 꿈결에 원수님을 만나보는 꿈을 꾸다가 단잠을 깨운 동무에게 화를 낸 이야기도 들을수 있습니다.

잠결에도 경애하는 원수님의 품에 안겨드는 인민들, 섯소소를 떠나시는 원수님을 따라 차디찬 바다물에 뛰어들고 이 세상 끝까지 가고싶 불라는 그리움을 안고사는 천만군민의 가슴속에 고통치는 하나의 간절한 념원은 경애하는 원수님의 안녕과 건강입니다.

평등자와 인민이 사랑과 정으로 통하는 나라, 평등자는 인민의 리상을 위해, 인민은 평등자의 구상을 실현하기 위해 기쁨도 슬픔도 함께 나누며 찬란한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공화국이야말로 그 어떤 천지풍파에도 흔들림없고 그 어떤 대적도 넘볼수 없는 천하제일강국, 리상형의 강국이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내가 암흑속에서 찾은 광명의 참세상, 인민의 꿈이 꽃피는 나라입니다.

송 고 한 애 국 의 발 걸 음 따 라

사람들은 전인민적으로 널리 애창되는 노래, 들으면 들수록 생각깊어지는 그런 노래를 두고 명곡이라고 한다.

명곡은 나라와 민족, 시대와 인민의 사상감정을 대변하기도 한다.

오늘 공화국의 인민들이 사랑하며 즐겨 부르는 명곡들은 많다. 그러한 명곡들중의 하나가 《나는 영원히 그대의 아들》이다.

그대가 한그루 나무라면 이 몸은 아지에 피는 일사귀 찬바람 불어와 떨어진다도 흙이 되어 뿌리 들어주리라 ...

이 노래는 1984년에 창작된 것이다.

노래의 가사에 있는 《찬바람 불어와 떨어진다도/흙이 되어 뿌리 들어주리라》는 구절은 해방후 새 조국건설의 나날로부터 오늘에 이르는 공화국의 역사적행로에서 조국을 위하여 자기의 모든 것을 서슴없이 바친 이 나라 인민들의 애국적인 삶을 그대로 반영한 것이다.

지금도 눈앞에 어려운데. 생명의 희망도 행복도 조국의 운명보다는 귀중치 않다고 웨치며 불붙는 적의 화점들을 염으로 막은 전승세대들, 전후 재미우에서 기적의 천마를 떠올리고 고난의 행군시기 허리띠를 조이며 사회주의강국건설의 만년토대를 다진 전세대들의 모습이...

그들의 뜨거운 선혈과 고귀한 땀방울에 의하여 공화국은 가장 존엄높은 사회주의강국으로 만방에 빛을 뿌리고있는 것이다.

자랑스러운 우리의 전세대들이 지녔던 애국의 마음과 조국을 위해 바친 삶의 자욱자욱을 그대로 시어로 표현한다면 《흙이 되어 뿌리 들어주리라》 일 것이다.

《흙이 되어 뿌리 들어주리라! 비록 열한 글자밖에 안되는 이 짧은 속구에 위대한 공화국이 깎여온 승리와 기적의 영광스러운 력사가 있고 사회주의의 선이 지닌 무궁무진한 힘의 원천이 있으며 강대하고 존엄높은 국가를 떠올린 이 나라 인민의 모습이 있다.

한 나라 인민이 어떤 노래를 좋아하고 즐겨 부르는가를 보면 그 나라 인민들의 정신세계와 인생관, 이상과 포부를 알 수 있다.

오늘 공화국의 인민들은 그 어떤 시련과 고통속에서도 언제나 인민을 품어안고 온갖 난바람, 비바람 다 막아주며 행복만을 안겨주는 사회주의조국을 자기의 생명처럼 여기고있으며 조국의 부강변영을 위해 혼신을 다 바치고있다.

조선로동당 제8차대회를 높은 정치적의의와 빛나는 로력적성으로 맞이하기 위한 총성의 80여 전투가 힘차게 벌어지던 몇해전 10월 어느날, 개천치주탄광평원합기역의 조양탄광 3경에서는 뜻밖의 불락사고가 발생하였다. 압축공기도 보장되지 않고 전기선도 끊어지고 물도 없는 막장에 갇힌

4명의 탄부들속에는 20대의 젊은 스대장과 년로보장을 눈앞에 둔 발과공아바이, 꽃나이온전공지녀와 어린 두 자식의 아버지인 채란공이 있었다. 그들중 대부분은 불락될 처을 겪는 사람들이었다. 이들을 구원하기 위한 긴장한 전투 끝에 막장을 열었을 때 탄광 일꾼들과 탄부들의 눈앞에 제일 먼저 안겨오는 동발밖에 서있는 《우리는 비판하지 않는다. 원수님 계시어 80일전투의 승리는 확정적이다!》라는 글발과 함께 다음교대를 위하여 또 한차례의 발과준비를 해놓고 쓰러진 그들의 모습이었다.

찬바람 불어와 떨어지도 흙이 되어 뿌리를 넣어주는 나무의 일 새처럼 조국을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바치려 한 그들의 인생관은 얼마나 아름다운 것인가.

강대하고 존엄높은 공화국의 오늘을 자기의 모든것을 다 바쳐 조국의 부강변영에 이바지하는 이런 참된 인간들의 고결한 애국심을 떠나 생각할 수 없다. 이러한 애국자들은 이 땅에서 몇몇 사람들이 아니라 온 나라의 천만 인민이다.

하기에 이 나라의 인민들은 노래 《나는 영원히 그대의 아들》을 그토록 사랑하며 즐겨 부른 전투가 힘차게 벌어지던 몇해전 10월 어느날, 개천치주탄광평원합기역의 조양탄광 3경에서는 뜻밖의 불락사고가 발생하였다. 압축공기도 보장되지 않고 전기선도 끊어지고 물도 없는 막장에 갇힌

이 인생관을 삶의 본령으로, 좌우명으로 삼고 공화국의 인민

들은 조국을 위한 멀고 험난한 투쟁의 길을 강건히 헤쳐왔으며 오늘은 더욱 휘황찬란할 미래를 향하여 세월을 주름잡으며 용진하고있다.

영웅조선의 절대적힘을 만장약한 주체법기들과 건설의 대변영기속에 천지개벽되는 수도 평양, 일하기도 좋고 살기도 좋은 리상먼저 안겨오는 사회주의농촌들과 강력한 자립적민족경제는 오늘 공화국의 인민들이 어떻게 이 땅에 천하제일강국, 천하제일락원을 일떠세우고있는가를 웅변적으로 보여주고있다.

위대한 수령이 있어 위대한 인민이 있다.

경애하는 김정은 원수님은 공화국을 세상에 제일 강대 한 나라, 인민의 만물이 꽃피어나는 나라로 일떠세우시러 위대한 선의 길, 애국헌신의 길을 쉬임없이 이어가시는 절세의 애국자이시며 인민의 자애로운 아버지이다.

언제인가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김정일애국주의와 관련한 자신의 사상감정을 소박한 시구로 표현한다면 《흙이 되어 뿌리 들어주리라》이라고, 자신께서는 《흙이 되어 뿌리 들어주리라!》를 구절이 들어있는 노래 《나는 영원히 그대의 아들》을 사랑한다, 그것은 노래의 구절에서 자기의 한몸을 강고히 바쳐서라도 조국의 부강변영에 이바지하려는 송고한 사상감정이 깃들었기 때문이라고 뜻깊게 말씀하시었다.

언제인가 공화국을 방문하였던 한 해외동포는 3대를 이어가며 위생시설수리공으로 일하는 녀성에 게 이렇게 물은적이 있었다. 《무슨 재미로 수선년동안 이 일을 합니까?》

《주민들의 생활상애로를 풀어 주는 재미에 합니까. 인민들이 좋아하는것을 볼 때가 제일 기쁘답니다.》

사람들이 기뻐하는 재미에 한 생 가까이 작은일을 해온 그녀 성, 인민들이 좋아하면 그것이 곧 더없는 보람이고 행복이라는 그의 인생관앞에서 해외동포는 머리숙이지 않을 수 없었다.

후날 그 해외동포는 자기의 수기에서 이렇게 썼다. 《그도 녀성이었다. 그라 고 왜 다른 녀성들처럼 골게 차려입고 편안하게 살고 싶지 않았을까. 그러나 그는 일하는 마음에 따라 바꿀수 있는 직업이 아니라 땅심으로써 영원히 지켜야 할 조국의 초소라는 생각으로 마음을 굳게 가다듬곤 하였다. 그 나날 최정순녀성은 여섯해 자란 네 자식모두를 자기와 한초소에 세웠다. 그의 한생은 이렇게 흘러갔다. 자기 일터를 사랑하며 값있는 위훈으로 빛내여가는 이런 애국자들이 많아 고난과 시련이 겹쌓이고 그 아무리 풍파가 사납다 해도 공화국은 끄떡 없으리라는 확신이 들었다.》

오늘도 공화국에서는 자기의 일터를 자기 지켜선 조국이라고 여기며 자기의 모든것을 묵묵히 바쳐가는 이런 애국자들이 수없이 많다.

지난 10년간 전국적으로 700여 명의 로력영웅이 배출되고 부강조국건설사에 뚜렷한 삶의 자욱을 새겨는 수많은 일꾼들과 근로자들이 사회주의애국공로자의 값 높은 영예를 지니었다는 사실만 놓고도 공화국이야말로 애국자대부대의 조국이라는것을 잘 알 수 있다.

비록 그들이 하는 일은 서로 다르지만 그들은 하나같이 가사

보다 국사를 먼저 생각하며 나라를 위해 헌신하고있다. 누가 보건말건 알아주건말건 그렇게 한생을 묵묵히 자신의 모든 힘과 열정을 강고히 다 바치건만 그들이 하는 말은 얼마나 소박한 것인가.

《고마운 어머니당에 일로밖에 는 보답할것이 없어서 맘을 바쳤을뿐입니다.》

《전 나무처럼 살고싶었습니다. 나무는 죽어도 서서 죽고 있새는 떨어져도 뿌리를 넣어주지 않습니까.》 애국자. 맑고 깨끗한 진정이 흘러넘치는 그들의 말을 들으며 다시한번 불리보는 부름이다. 그는 느라면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영광의 최절정에 세우신 이 땅의 평범한 근로자들, 조선로동당이 국가의 초석으로, 대들뽀로 귀중히 여기는 로력혁신자, 공로자들의 모습이 떠오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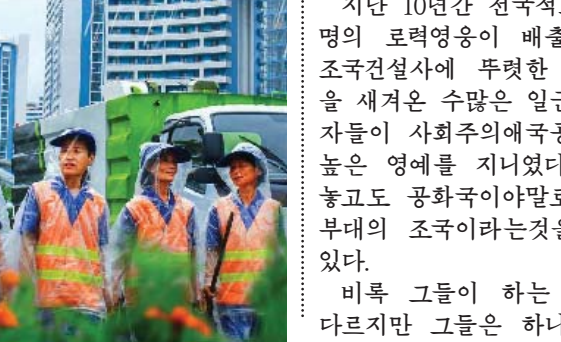
바로 그들은 사랑하는 조국에 보탬이 되는 일이라면 이는 발전소의 화실에 한층 석탄이 되어 날아들어도 좋고 가없이 푸르른 농장벌의 어린 모 한포기 살쳐우는 거름이 되어도 좋다는 송고한 일념을 안고 조국방 방방곡곡에서 피와 땀을 아낌없이 바쳐가는 애국공민들이다.

애국자대부대라고 사람들속에서 정감대 불리우는 경우 동의 주민들인 과학자, 화력발전소의 혁신자부부, 공훈장수훈자부부, 직포공, 도로관공, 동물사양관리공, 교원 등 각계층 근로자들도 그러한 참된 인간들이다.

이러한 애국자들이 절세위인의 탁월한 령도따라 세계를 놀래우는 기적과 혁신으로 공화국을 천하제일강국, 천하제일락원으로 일떠세우고있다.

진정 조국을 열렬히 사랑하고 조국의 부강변영을 위해 자기의 모든것을 바치는 애국적인민에 의해 그토록 존엄높고 강하며 승리와 기적만을 떨치는 공화국이다. 본사기자 리연선

애국자대부대를 가진 나라



내 나이 올해 89살이다. 몇해 전 나는 박사학위를 수여받았다. 만나는 사람마다 젊은 나이에 박사가 된 사람은 보았어도 80고령에 박사가 되었다는 이야기를 별로 들어보지 못했다고 하면서 놀라움과 감탄을 금치 못하곤 할 때마다 나는 내가 안겨사는 공화국의 품이 얼마나 따뜻한 삶의 품인가 하는것을 절감하곤 한다.

내가 공화국의 품에 안기지 못했더라면 박사는커녕 비참한 인생살이에 부대끼다가 오래전엔 불우한 생을 마쳤을 것이다.

일제식민지통치시기 나는 서울에서 모진 가난속에 온갖 고생을 겪으며 어린시절을 보냈다.

아버지는 지계군을 하고 어머니는 쌀밭배를 하며 겨우 생계를 이어가는 속에서도 새 지식층 나만은 어떻게 하나 공부시켜보려고 무진 애를 썼다. 그러던중 해방을 맞이했던날 일제를 대신하여 기여든 미국놈들에 의해 설움의 학창시절을 보내지 않으면 안되었다. 온갖 고초를 겪으며 인민의 세상을 마음속으로 그리던 나는 조국해방전쟁시기 서울이 해방되자 남먼저 의용군에 입대하였다.

전화의 나날 위대한 수령님의 은정어린 조치에 의하여 전선에서 소환되어 김일성총합대학에서 공부하게 된 나는 수령님의 크나큰 사랑과 믿음에 높은 학업성적으로 보답하기 위해 열심히 공부했다.

나라에서는 나에게 학용품과 장학금을 안겨주었으며 대학을 졸업한 후에는 꿈에도 바라마지 않던 교단에 서게 해주었다.

나를 위해 기울인 동지들의 사랑과 정은 또 얼마나 뜨거웠던

가. 명절날이면 대학의 교원들과 동무들이 저마다 혈육의 정을 그리워하는 나를 자기들의 집으로 이끌었고 새 가정을 이룰 때에는 모두가 떨쳐나 결혼식상은 물론 가수와 생활용품까지 일식으로 마련해주었다.

진정 공화국의 품은 나에게 삶의 희열을 안겨주고 온갖 꿈을 이룰수 있게 해준 행복의 요람이었다. 나는 어머니조국의 한없는 사랑과 은정에 보답할 일념으로 가슴 불태우며 한계단 한계단 과학탐구의 탐을 쌓아나갔다.

그 나날 나는 현실에서 철박하게 요구하는 고강도조직적합체를 만들것을 결심하고 달려붙었다. 하지만 결심이 곧 실천으로 되는것은 아니었다. 이러저러한 원인으로 실패는 거듭되었다.

그때마다 내가 걸어온 인생길을 돌이켜보며 힘과 용기를 가다듬곤 하였다. 보답의 열망은 지칠줄 모르는 정열의 원천이었다.

연구소집단의 적극적인 협조와 방조를 받으며 마침내 실천에서 큰 의의를 가지는 고강도조직적합체연구에서 성공할수 있었다.

주제106(2017)년 5월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는 나의 연구성과를 보고받으시고 높이 평가해주시는 크나큰 은정을 베풀어주시었다.

나는 너무도 크나큰 감격에 오열을 터치고말았다. (경애하는 원수님, 정말 고맙습니다!)

이렇듯 나는 공화국의 품에 안겨 인간으로서, 과학자로서 영광과 행복의 단상에 올라섰다.

공화국의 품에 안길 때 재산이란 운운배낭 하나뿐이었던 내가 받아안은 인생의 재부는 얼마나 크고 올라선 인생의 높이는 또 얼마나 아득한 것인가. 나는 늘 마음속으로 다짐하곤 한다.

한없이 고마운 사회주의 내 조국을 위해 숨어지는 마지막순간까지 지혜와 열정을 강고히 바쳐가겠다고. 동대원구동 동대원1동 박봉실

무릇 재부라고 할 때 값있는 모든 재산이나 물질적부위를 의미한다.

재부는 인간과 사회발전에서 필수적인 가치를 가진다. 하다면 우리 공화국의 제일재부는 무엇인가. 그에 대한 대답을 미덕과 미풍이 차넘치는 이 땅의 현실에서 찾을 수 있다.

얼마전에 취재길에서 만났던 략랑구역 승려1동 36인민반에 살고 있는 리영희녀성을 잊을수 없다. 그 어디서나 찾아볼수 있는 소박하고 평범한 녀성이었다.

하지만 그의 가슴속에는 뜨거운 열정이 간직되어있었다.

그것은 조국의 부강변영을 위해 자기의 적은 힘이나마 바쳐가려는 애국의 마음이었다.

늘 가사보다 국사를 먼저 생각하며 백두산영웅청년발전소건설

장과 함북도 북부피해복구건설, 삼지연시건설장을 비롯하여 사회주의대전선전역마다에 뜨거운 지성을 기울여온 그녀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6차전원회의 사상을 받아안았을 때에도 그와 가에서 저축했던 자

금으로 많은 식량을 마련하여 애국미로 나라에 바치었다.

그리고 얼마전에는 평안남도간석지건설종합기업소 안전건설지 피해 복구현장을 돌아본시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혁명활동보도소식을 접하고 피해복구에 동원된 인민군군인들을 위해 자기의 뜨거운 정열을 바치었다.

습을 보는것만 같았다.

그때 우리 3형제모두가 한날한시에 새 교복을 라입은 모습을 보여 어머니는 《나라에서 우리 부모들이 해야 할 일을 대신해주었구나.》라며 손등으로 흘려내리는 눈물을 닦았다.

그날의 학생이었던 내가 오늘은 아버지가 되어 새 교복을 입은 아이들을 보게 되니 마음은 격정으로 뜨거워졌다.

한껏 즐거움에 넘쳐 학교로 가는 아이들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눈을 보는것만 같았다.

그때 우리 3형제모두가 한날한시에 새 교복을 라입은 모습을 보여 어머니는 《나라에서 우리 부모들이 해야 할 일을 대신해주었구나.》라며 손등으로 흘려내리는 눈물을 닦았다.

그날의 학생이었던 내가 오늘은 아버지가 되어 새 교복을 입은 아이들을 보게 되니 마음은 격정으로 뜨거워졌다.

한껏 즐거움에 넘쳐 학교로 가는 아이들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습을 보는것만 같았다.

한가정의 주부로서, 어머니로서 그에게도 돌보아야 할 남편과 자식을 기를어온 그녀다.

그러나 그는 언제한번 자기 가정의 행복을 조국의 부강변영과 떼어놓고 생각해본적이 없었다.

그렇듯 순결한 마음을 안고 그

는 누가 알아주건말건 변함없이 애국의 길을 걸고있었다. 그러면서도 더 바치기 못하는것을 두고 안타까워하고있었다.

이런 사람이 애국자가 아니겠는가. 가사우에 국사를 놓는 애국자. 생각도 깊어진다. 자기들이 무거운 짐을 질수록

어머니조국의 어깨우에 실리는 짐이 가벼워진다는 오직 하나의 생각으로 자기도 모르게, 사심없이 바쳐가는 참된 애국자들, 대를 이어 한길을 가는 애국자과정들이 이 땅에는 얼마나 많은가.

당의 목소리를 전하며 수십년 세월을 한몸으로 사는 우편통신원, 누가 보건말건 국가가 맡겨 준 초소를 자기의 전초처럼 지키가는 도로관리원, 수원지관리공, 중계공들이며 구봉령일공, 용해공가장, 신발수리공장 그리고 나라의 군력을 튼튼히 다지기 위해 온갖 지성을 다해가는 원공미공

은의 총에 맞아죽거나 부상당한 18살미만 미성년의 수가 6000명 이상에 달하여 사상최고치를 기록하였다고 한다.

지난 3월 미국의 테세시주에 있는 한 초등학교에서 끔찍한 총격사건이 발생하여 3명의 학생이 총탄에 맞아죽은것을 비롯하여 올해 1월부터 8월까지에만 470건의 대규모총격사건이 발생하여 수많은 나 어린 사망자들이 목숨을 잃었다.

결했지만 교정에 뛰어들어 총을 탄사함으로써 배움의 터전이 피가 량자한 죽음의 생지옥으로 되고있는 살인왕국 미국의 현실을 두고 어느한 나라의 신문은 《미국에서는 자식을 학교에 보낼 때 살아서 돌아온다는 담보가 없다. 미국은 부정의가 정의를 누르고 살판치는 나라이다. 살인이 만무하는 곳에 서는 꿈을 이룰수 없다.》고 폭로하였다.

오죽했으면 미국에서 학생들이 총에 맞을까봐 교복이 아니라 방탄복을 입고 학교로 가고 끝모르는 절망과 공포속에 하루하루를 보내고있겠는가.

매일이 들이닥치는 총기류범죄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방탄복이 교복을 대신해야 하고 《살려주세요!》라는 비명소리가 그칠새

모습과는 너무도 대조되는 끔찍한 광경이었다.

대낮에도 길가에서 마구 숨리는 아저레운 총소리, 가슴을 쪼개는 비명소리와 울음소리, 무차별 날아오는 총탄을 피해 교실 책상밑에 엎드려거나 학교밖으로 도망치는 공포에 질린 아이들...

이것은 영화의 한 장면이 아니라 약육강식과 메뚜기떼처럼 만연하고 정신도덕적으로 부패타락하여 총기류를 들고 서로 죽일대기를 하는 미국사회에서 매일과 같이 펼쳐지는 아이들의 불행한 모습이었다.

총기류범죄가 살판치는 미국에서 가장 큰 피해자는 연약한 어린이들과 학생들이다. 지난해만 놓고보아도 미국에

어머니조국의 어깨우에 실리는 짐이 가벼워진다는 오직 하나의 생각으로 자기도 모르게, 사심없이 바쳐가는 참된 애국자들, 대를 이어 한길을 가는 애국자과정들이 이 땅에는 얼마나 많은가.

당면의 목소리를 전하며 수십년 세월을 한몸으로 사는 우편통신원, 누가 보건말건 국가가 맡겨 준 초소를 자기의 전초처럼 지키가는 도로관리원, 수원지관리공, 중계공들이며 구봉령일공, 용해공가장, 신발수리공장 그리고 나라의 군력을 튼튼히 다지기 위해 온갖 지성을 다해가는 원공미공

은의 총에 맞아죽거나 부상당한 18살미만 미성년의 수가 6000명 이상에 달하여 사상최고치를 기록하였다고 한다.

지난 3월 미국의 테세시주에 있는 한 초등학교에서 끔찍한 총격사건이 발생하여 3명의 학생이 총탄에 맞아죽은것을 비롯하여 올해 1월부터 8월까지에만 470건의 대규모총격사건이 발생하여 수많은 나 어린 사망자들이 목숨을 잃었다.

결했지만 교정에 뛰어들어 총을 탄사함으로써 배움의 터전이 피가 량자한 죽음의 생지옥으로 되고있는 살인왕국 미국의 현실을 두고 어느한 나라의 신문은 《미국에서는 자식을 학교에 보낼 때 살아서 돌아온다는 담보가 없다. 미국은 부정의가 정의를 누르고 살판치는 나라이다. 살인이 만무하는 곳에 서는 꿈을 이룰수 없다.》고 폭로하였다.

오죽했으면 미국에서 학생들이 총에 맞을까봐 교복이 아니라 방탄복을 입고 학교로 가고 끝모르는 절망과 공포속에 하루하루를 보내고있겠는가.

매일이 들이닥치는 총기류범죄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방탄복이 교복을 대신해야 하고 《살려주세요!》라는 비명소리가 그칠새

모습과는 너무도 대조되는 끔찍한 광경이었다.

대낮에도 길가에서 마구 숨리는 아저레운 총소리, 가슴을 쪼개는 비명소리와 울음소리, 무차별 날아오는 총탄을 피해 교실 책상밑에 엎드려거나 학교밖으로 도망치는 공포에 질린 아이들...

이것은 영화의 한 장면이 아니라 약육강식과 메뚜기떼처럼 만연하고 정신도덕적으로 부패타락하여 총기류를 들고 서로 죽일대기를 하는 미국사회에서 매일과 같이 펼쳐지는 아이들의 불행한 모습이었다.

총기류범죄가 살판치는 미국에서 가장 큰 피해자는 연약한 어린이들과 학생들이다. 지난해만 놓고보아도 미국에

어머니조국의 어깨우에 실리는 짐이 가벼워진다는 오직 하나의 생각으로 자기도 모르게, 사심없이 바쳐가는 참된 애국자들, 대를 이어 한길을 가는 애국자과정들이 이 땅에는 얼마나 많은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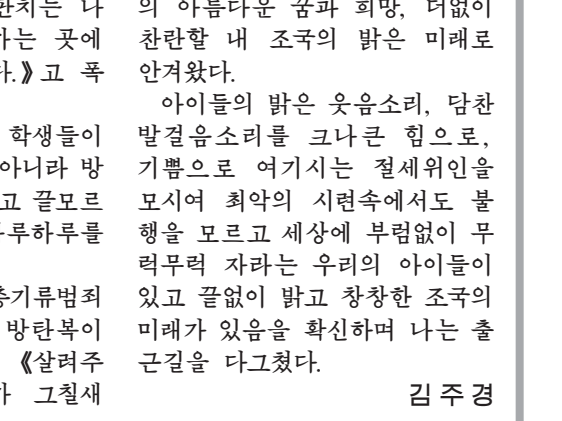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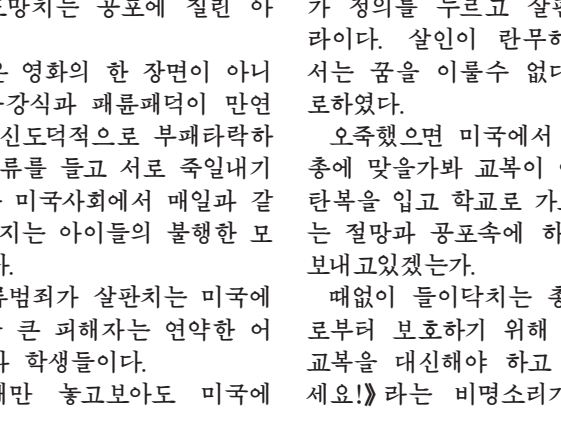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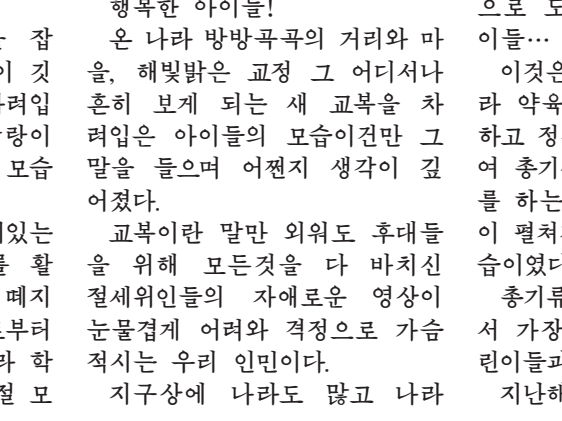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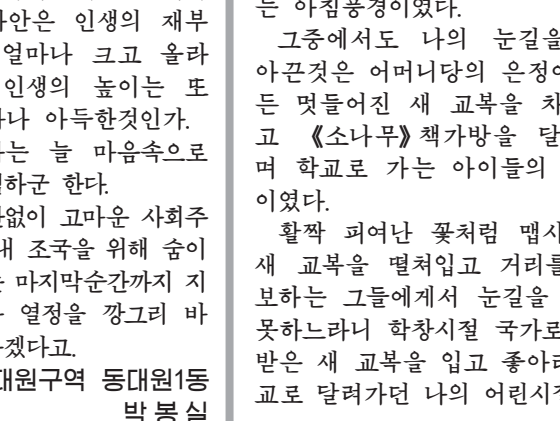
당면의 목소리를 전하며 수십년 세월을 한몸으로 사는 우편통신원, 누가 보건말건 국가가 맡겨 준 초소를 자기의 전초처럼 지키가는 도로관리원, 수원지관리공, 중계공들이며 구봉령일공, 용해공가장, 신발수리공장 그리고 나라의 군력을 튼튼히 다지기 위해 온갖 지성을 다해가는 원공미공

은의 총에 맞아죽거나 부상당한 18살미만 미성년의 수가 6000명 이상에 달하여 사상최고치를 기록하였다고 한다.

지난 3월 미국의 테세시주에 있는 한 초등학교에서 끔찍한 총격사건이 발생하여 3명의 학생이 총탄에 맞아죽은것을 비롯하여 올해 1월부터 8월까지에만 470건의 대규모총격사건이 발생하여 수많은 나 어린 사망자들이 목숨을 잃었다.

결했지만 교정에 뛰어들어 총을 탄사함으로써 배움의 터전이 피가 량자한 죽음의 생지옥으로 되고있는 살인왕국 미국의 현실을 두고 어느한 나라의 신문은 《미국에서는 자식을 학교에 보낼 때 살아서 돌아온다는 담보가 없다. 미국은 부정의가 정의를 누르고 살판치는 나라이다. 살인이 만무하는 곳에 서는 꿈을 이룰수 없다.》고 폭로하였다.

오죽했으면 미국에서 학생들이 총에 맞을까봐 교복이 아니라 방탄복을 입고 학교로 가고 끝모르는 절망과 공포속에 하루하루를 보내고있겠는가.



진영만 영권전대 평양까지

투교

새 교복과 방탄복

얼굴도 꽃처럼 환하였다. 이때 지나가던 나이지숙한 사람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참 좋은 아침이요. 새 교복을 입고 학교로 가는 아이들을 좀 보요. 얼마나 행복한 우리 아이들이요.》 행복한 아이들! 온 나라 방방곡곡의 거리와 마을, 해빛밝은 교정 그 어디서나 흔히 보게 되는 새 교복을 차려입은 아이들의 모습이건만 그 말을 들으며 어찌 생각이 깊어졌다.

모습과는 너무도 대조되는 끔찍한 광경이었다. 대낮에도 길가에서 마구 숨리는 아저레운 총소리, 가슴을 쪼개는 비명소리와 울음소리, 무차별 날아오는 총탄을 피해 교실 책상밑에 엎드려거나 학교밖으로 도망치는 공포에 질린 아이들...

탄을 탄사함으로써 배움의 터전이 피가 량자한 죽음의 생지옥으로 되고있는 살인왕국 미국의 현실을 두고 어느한 나라의 신문은 《미국에서는 자식을 학교에 보낼 때 살아서 돌아온다는 담보가 없다. 미국은 부정의가 정의를 누르고 살판치는 나라이다. 살인이 만무하는 곳에 서는 꿈을 이룰수 없다.》고 폭로하였다.

어머니 조국의 사랑은 언제나 따스하다

- 세기를 이어 올리는 노래 《조국의 사랑은 따사로워라》를 들으며 -

지난 9월 6일 공화국창건 75돐을 경축하여 일본 도쿄에서는 종련의 여러 예술단체들과 각계층 동포들이 출연하는 대공연 《우리의 국기》가 진행되었다.

조국에 대한 열렬한 사랑이 맥박치고 민족적정서가 차넘치는 공연무대에는 합창 《조국의 사랑은 따사로워라》도 올랐다.

제일동포들이 세기를 이어, 세대를 이어가며 부르고 또 부르는 노래 《조국의 사랑은 따사로워라》.

이 노래가 공화국창건 75돐을 경축하는 뜻있는 대공연무대에서 다시 울려 퍼져 참가자들의 가슴가슴을 뜨겁게 울리었다.

환희로운 공화국창건기념일에 이역의 하늘가에 울려 퍼진 격정의 노래, 그것은 해가 갈수록 더욱 따듯이 보살펴 주는 조국에 드리는 종련과 제일동포들의 다함없는 고마움의 인사, 그리움의 노래였고 이 세상 끝까지 어머니 조국과 운명의 피줄을 굳게 잇고 나아가려는 동포들의 굳은 맹세의 분출이었다.

그만이 아니었다. 초만원이 이른 극장의 여가저기에서도 관중들이 터지는 호느낌소리가 울리고 공연을 관람하는 제일동포들의 얼굴에는 누구라 할것없이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리고 있었다.

... 아 수령님의 높고 큰 이 사랑을 산이나 바다에 그 어이 비기랴 ...

가수도 울고 관중도 울며 함께 부른 이 노래가 바로 제일동포들이 사랑하며 즐겨 부르는 가요 《조국의 사랑은 따사로워라》이다.

하다면 이 노래에 과연 어떤 사연이 깃들었었기에 그토록 해외동포들의 심금을 뜨겁게 울렸던가.

이 노래는 1950년대 중엽 조국에서 교육원조비와 장학금을 보내왔을 때 너무나 감격하여 당시 한덕수 제일본조선인총련합회 의장이 지은 노래이다.

그때로 말하면 조국의 형편이 극도로 어려웠던 시기였다.

전화의 재를 털고 사회주의에로의 첫걸음을 내딛어야 했고 여기에서 공화국의 전진을 가로막으려는 안팎의 원수들의 준동은 극도에 달하고 있었다.

이 모든 난관을 뚫고 영웅조선의 기상을 다시 한번 떨칠 단호한 결심을 내린 위대한 김일성주석님께서는 응대해 5개년인민경제계획을 내놓으시었다.

사회주의공업화의 토대를 닦으며 식의주문제의 근본적 해결... 그런데 조국에서는 이 방대한 계획에 비하여 모든것이, 특히 자금이 엄청나게 부족

하였다. 하지만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우리가 공장을 한두개 못 짓는한이 있더라도 이극당에서 고생하는 동포들에게 아이들을 공부시킬 돈을 보내 주어야 한다. 이것은 우리의 민족적의무라고 하시면서 많은 교육원조비와 장학금을 보내주도록 하시었다.

교육원조비와 장학금. 단순히 돈이 아니었다. 그것은 이역땅에 살고있는 제일동포들의 가슴마다에 흘러든 사랑의 생명수였으니 허물어지는 교실 아닌 교실에서 백묵과 종이마저 부족하여 애래우던 조선학교 교원들과 돈이 없어 배움의 꿈을 포기했던 동포학생들이 아닌 전체 제일동포들이 《위대한 수령 김일성주석님 만세!》를 감격의 눈물속에 목청껏 부르고 또 부른것은 너무나도 응당할것이었다.

꿈결에도 생각지 못했던 많은 교육원조비와 장학금을 받아안은 제일동포들의 감격과 기쁨, 어머니조국에 대한 다함없는 감사와 고마움이 그대로 가사가 되고 곡이 되어 노래 《조국의 사랑은 따사로워라》가 세상에 태어나게 되었던것이다.

돌이켜보면 일제식민지통치시기 찬바람부는 이역땅에 팔려가 갓은 민족적천대와 멸시를 받으며 살아야 했던 제일동포들이 부른 노래는 《이리랑》이나 《봉선화》와 같은 구슬픈 노래였다.

이런 그들에게 존엄성은 공화국의 해외공민권 공지와 자부심을 안겨주고 따뜻한 사랑의 한풀이 안아주시는 어머니 수령님이시었다.

제일동포자녀들에게 돌려 주신 수령님의 사랑은 참으로 각별하시었다. 주제61(1972)년 8월 18일

조국래왕의 권리를 쟁취한 후 청소년들로서는 처음으로 조국을 방문한 도쿄조선중고급학교와 요코하마조선중고급학교 학생들에게 돌려주신 어머니수령님의 사랑과 온정에 대한 이야기는 얼마나 사람들의 가슴을 뜨겁게 해주는 것인가.

이날 제일조선학생소년들을 만나주시기 위해 평양학생소년궁전에 나오신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인사도 변변히 드리지 못한채 그이의 손목과 옷자락에 앞을 닦으며 달려 감격에 울고웃는 동포학생들을 품에 안아주시며 그들의 눈물도 닦아주시고 손에 과일이며 사랑, 과자도 쥐어주시었다.

제일동포학생들을 사랑의 한풀이 안아주시고 그들이 성의껏 준비한 공연도 보아 주시며 종목이 바뀔 때마다 심함으로 크게 박수를 쳐주시고 어머니수령님께서서는 공연이 끝난 후에 애바바바를 전해주시고 무대까지 오셔서 사랑의 기념사진도 찍어주시었다. 그리고 바로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아이들과 헤어지기 아깝다고 하시며 동포학생들을 포대시 만나주시고 자신의 존함이 새겨진 손목시계까지 안겨주시었다.

시계가 잘 가는지, 흠집이 없는가 하나하나 살펴보고 동포학생들의 손에 꼭꼭 쥐어주시면서 내가 동무들에게 주는 이 시계는 기념으로 차고다니라고, 시계끈이 커서 아이들에게는 안맞을수도 있는데 잘 보관하였다가 큰 다음에 차도 된다고 다짐하게 이리큰 어머니수령님의 크나큰 사랑을 어찌 하늘의 높이와 바다의 깊이에 비길수 있으랴.

하기에 제일동포학생들은 어머니수령님의 사랑을 조국

의 사랑으로 받아안고 조국을 방문할 때마다 그이를 우러러 다함없는 감사와 축원의 인사를 갈가 드러내 하였다.

주제76(1987)년 제일조선인 학생소년예술단이 위대한 수령님을 모시고 진행되는 조국학생들의 실타이공연에 처음으로 참가하였을 때였다.

자나깨나 달려가 안기고 싶은 어머니수령님을 모시고 뜻있는 실타이공연에 참가하게 된 제일조선인학생들은 자기들의 기쁨과 감격을 아름다운 춤과 노래에 담아 펼쳐보이였다.

1980년 10월 26일은 세계 해운력사에 《죽음의 날》로 기록되어있다.

그날 평양양서부수역을 휩쓴 무시무시한 태풍으로 일본을 비롯한 여러 나라의 1만1천이상의 선박들이 수십척이나 침몰되고 태풍중심권을 벗어난 조선반도 남쪽근해에서만도 740여척의 배들이 항방없이 풍적을 감주었으며 수많은 인명손실을 보았다.

하지만 그 태풍을 뚫고 수백여명의 제일동포청년들을 태운 《삼지연》호가 조국땅에 무사히 입항하는 《신화》가 창조되었다.

바로 그날 밤 일본을 떠나 조국으로 달려오던 《삼지연》호가 태풍을 만나 위험에 처했다는 보고를 받으신 위대한 김정일장군님께서서는 배를 구원하기 위한 전두를 몸소 지휘하시었다.

수많은 의사들과 구명기재들을 실은 2만4천대형정배와 해군함선들이 산같은 파도를 헤치며 태풍수역으로 달려가고 《삼지연》호에서는 배의 침몰을 막기 위한 결사적인 투쟁이 벌어졌다.

이렇게 되어 사나운 풍랑으로 침몰의 위기에 처하였던 《삼지연》호가 조국의 항구에 무사히 입항하는 기적이 일어나게 되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제일동포학생들에게 돌려주시는 사랑과 온정에 대한 이야기는 다 하지않아 끝이 없다.

하늘같은 이 사랑에 떠받들려 어머니수령님 탄생 70돐이 되던 해 봄 일본에 있는 유치만어린이로부터 초급학교학생에 이르는 동포자녀 모두에게 3부리씩 차례질수 있는 희귀한 산삼이 안겨지고 조국방문을 마치고 일본으로 돌아가는 제일조선학생

들을 위해 특별렬차가 달려 전설같은 이야기들도 태어나게 되었다.

하나를 주시면 열을 주고 싶어하시고 열을 주시면 백을 더 주고싶어하시는것이 제일조선학생소년들에게 배풀어 주신 위대한 장군님의 따스한 사랑이었다.

어느해인가 자금이 긴장하여 총련에 보내주기로 한 교육원조비의 나머지 돈을 보내지 못했다라는 보고를 받고 제일동포자녀들의 민족교육사업은 총련에서 우리 혁명의 대를 잇기 위한 매우 중대한 사업이라고, 금덩이를 팔아서라도 꼭 해를 넘기기로 하고 보내주어야 한다고 간곡히 이리신 위대한 장군님이시었다.

교육원조비와 장학금이 깃든 사랑의 이야기는 민족총련의 국상의 나날에도 이어졌으니 어머니수령님께서서 너무나도 절절하게 우리곁을 떠나신 5천년래의 대국상이 있는 그해 12월 초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일군들에게 총련에 교육원조비와 장학금을 보내는 문제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세워진 제도와 전통을 그대로 지켜야 한다고, 기간을 변경시키거나 그 량을 줄이지 말고 수령님께서 세실 때와 똑같이 보내주어야 한다고 간곡하게 이르시었다.

기쁨 떠나 술을 떠나 별한없이 어머니수령님과 똑같은 마음으로 총련과 민족교육을 생각하고 새세대 동포자녀들을 생각하시는 위대한 장군님을 우러르며 일군들은 수구치는 걱정의 눈물을 억척할수 없었다.

《제일동포자녀들을 위한 교육원조비와 장학금》이라는 예산항목이 생겨난 때로부터 어인 반세기가 넘는 오랜 세월이 흘렀다.

하지만 조국의 사랑은 오늘도 변함없이 이어지고있다.

지난 주제112(2023)년 4월 경에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서는 어머니수령님 탄생 111돐을 맞으며 제일동포자녀들의 민주주의적민족교육을 위하여 일본돈으로 2억 6 730만부의 교육원조비와 장학금을 총련에 보내주시는 크나큰 은정을 배풀어주시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와 위대한 장군님, 경에하는 원수님께서 제일동포자녀들을 위하여 보내주신 교육원조비와 장학금은 지금까지 169차례 걸쳐 일본돈으로 493억 9 787만 390부에 달한다.

어머니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께서 제일동포자녀들에게 돌려주시는 사랑의 력사에 경에하는 원수님의 손길아래 오늘도 끝없이 흐르고 있는것이다.

어찌 이뿐이라. 총련의 민족교육사업을 위해서라면 그 무엇도 아끼지 않으시는 경에하는 원수님의 사랑은 제14차 전국국원대회에 총련교육원군대표단을 불러주시고 대표단성원들을 모가까지 부르시어 위대한 수령님들의 태양상을 모신 붉은기름 배경으로 특별히 기념사진을 찍어주시는 최상의 영광과 행복을 안겨주시는 데도, 창립 65돐을 맞는 조선대학교 교직원, 학생들에게 축전을 보내주시고 대학이 나아갈 앞길을 환히 밝혀주시는 데도 뜨겁게 깃들여있다.

새로운 주제100년대 제일조선인운동이 나아갈 진로와 목표를 환히 밝혀주시고 총련일군들과 제일동포들을 해외혁명동지, 두터운 정을 안고 사는 혈육으로 불러주시며 위대한 수령님들의 마음까지 합쳐 각별한 사랑과 온정을 배풀어주시고계시는 경에하는 원수님.

경에하는 원수님께서는 제일본조선인총련합회결성 60돐서한에서 총련은 사회주의국가의 한 부분이며 제일동포들은 어머니조국과 해외공민을 잇고 사는 친형제, 한집안식솔이라고 하시며 우리 당과 공화국정부는 위대한 수령님과 장군님께서 맡기고있는 총련과 제일동포들의 운명과 미래를 끝까지 책임지고 보살필것이며 제일조선인운동의 강화발전을 위하여 모든것을 다할것임을 확언하시었다.

어머니조국과 해외공민을 잇고 사는 친형제, 한집안식솔. 제일동포들과 그 자녀들에 대한 경에하는 원수님의 열화와 같은 사랑과 믿음, 그것은 곧 모든 해외동포들에 대한 사랑과 믿음이다.

하기에 해외동포들은 진정한 조국인 공화국과 해외공민을 잇고 사는 우리들처럼 행복한 사람들은 이 세상에 없다고 소리높이 웨치고있는것이다.

해외동포들의 진정을 담은 이역의 하늘가에 울려 퍼지는 노래 《조국의 사랑은 따사로워라!》

대를 이어 절세위인들을 운명의 태양으로 높이 모신 해외동포들의 크나큰 긍지와 자부심, 더없는 행복을 담은 노래 《조국의 사랑은 따사로워라》는 더욱 힘차게, 더욱 뜨겁게 울려퍼질것이다.

본사기자 박철남

지금으로부터 수십년전 평양학생소년예술단이 일본에서 공연할 때 일이다.

공연종목이 바뀌어 한 나 어린 꼬마동창녀가수가 무대에 나섰다.

나라에서 나라에서 돈을 보낼줄은 꿈에도 꿈에도 생각을 못했지요

교육원조비 장학금이 많고 많은 귀한 돈을 바다너머 저 멀리 조국에서 보내왔어요

... 무대에서 포랑포랑 울리던 독창가수의 목소리가 점차 가늘어지더니 끝내는 호느낌으로 변하고말았다.

목이 메어 울고있는것은

그때로 말하면 조국의 형편이 극도로 어려웠던 시기였다.

전화의 재를 털고 사회주의에로의 첫걸음을 내딛어야 했고 여기에서 공화국의 전진을 가로막으려는 안팎의 원수들의 준동은 극도에 달하고 있었다.

이 모든 난관을 뚫고 영웅조선의 기상을 다시 한번 떨칠 단호한 결심을 내린 위대한 김일성주석님께서는 응대해 5개년인민경제계획을 내놓으시었다.

사회주의공업화의 토대를 닦으며 식의주문제의 근본적 해결... 그런데 조국에서는 이 방대한 계획에 비하여 모든것이, 특히 자금이 엄청나게 부족

하였다. 하지만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우리가 공장을 한두개 못 짓는한이 있더라도 이극당에서 고생하는 동포들에게 아이들을 공부시킬 돈을 보내 주어야 한다. 이것은 우리의 민족적의무라고 하시면서 많은 교육원조비와 장학금을 보내주도록 하시었다.

교육원조비와 장학금. 단순히 돈이 아니었다. 그것은 이역땅에 살고있는 제일동포들의 가슴마다에 흘러든 사랑의 생명수였으니 허물어지는 교실 아닌 교실에서 백묵과 종이마저 부족하여 애래우던 조선학교 교원들과 돈이 없어 배움의 꿈을 포기했던 동포학생들이 아닌 전체 제일동포들이 《위대한 수령 김일성주석님 만세!》를 감격의 눈물속에 목청껏 부르고 또 부른것은 너무나도 응당할것이었다.

꿈결에도 생각지 못했던 많은 교육원조비와 장학금을 받아안은 제일동포들의 감격과 기쁨, 어머니조국에 대한 다함없는 감사와 고마움이 그대로 가사가 되고 곡이 되어 노래 《조국의 사랑은 따사로워라》가 세상에 태어나게 되었던것이다.

돌이켜보면 일제식민지통치시기 찬바람부는 이역땅에 팔려가 갓은 민족적천대와 멸시를 받으며 살아야 했던 제일동포들이 부른 노래는 《이리랑》이나 《봉선화》와 같은 구슬픈 노래였다.

이런 그들에게 존엄성은 공화국의 해외공민권 공지와 자부심을 안겨주고 따뜻한 사랑의 한풀이 안아주시는 어머니 수령님이시었다.

제일동포자녀들에게 돌려 주신 수령님의 사랑은 참으로 각별하시었다. 주제61(1972)년 8월 18일

조국래왕의 권리를 쟁취한 후 청소년들로서는 처음으로 조국을 방문한 도쿄조선중고급학교와 요코하마조선중고급학교 학생들에게 돌려주신 어머니수령님의 사랑과 온정에 대한 이야기는 얼마나 사람들의 가슴을 뜨겁게 해주는 것인가.

이날 제일조선학생소년들을 만나주시기 위해 평양학생소년궁전에 나오신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인사도 변변히 드리지 못한채 그이의 손목과 옷자락에 앞을 닦으며 달려 감격에 울고웃는 동포학생들을 품에 안아주시며 그들의 눈물도 닦아주시고 손에 과일이며 사랑, 과자도 쥐어주시었다.

제일동포학생들을 사랑의 한풀이 안아주시고 그들이 성의껏 준비한 공연도 보아 주시며 종목이 바뀔 때마다 심함으로 크게 박수를 쳐주시고 어머니수령님께서서는 공연이 끝난 후에 애바바바를 전해주시고 무대까지 오셔서 사랑의 기념사진도 찍어주시었다. 그리고 바로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아이들과 헤어지기 아깝다고 하시며 동포학생들을 포대시 만나주시고 자신의 존함이 새겨진 손목시계까지 안겨주시었다.

시계가 잘 가는지, 흠집이 없는가 하나하나 살펴보고 동포학생들의 손에 꼭꼭 쥐어주시면서 내가 동무들에게 주는 이 시계는 기념으로 차고다니라고, 시계끈이 커서 아이들에게는 안맞을수도 있는데 잘 보관하였다가 큰 다음에 차도 된다고 다짐하게 이리큰 어머니수령님의 크나큰 사랑을 어찌 하늘의 높이와 바다의 깊이에 비길수 있으랴.

하기에 제일동포학생들은 어머니수령님의 사랑을 조국

의 사랑으로 받아안고 조국을 방문할 때마다 그이를 우러러 다함없는 감사와 축원의 인사를 갈가 드러내 하였다.

주제76(1987)년 제일조선인 학생소년예술단이 위대한 수령님을 모시고 진행되는 조국학생들의 실타이공연에 처음으로 참가하였을 때였다.

자나깨나 달려가 안기고 싶은 어머니수령님을 모시고 뜻있는 실타이공연에 참가하게 된 제일조선인학생들은 자기들의 기쁨과 감격을 아름다운 춤과 노래에 담아 펼쳐보이였다.

1980년 10월 26일은 세계 해운력사에 《죽음의 날》로 기록되어있다.

그날 평양양서부수역을 휩쓴 무시무시한 태풍으로 일본을 비롯한 여러 나라의 1만1천이상의 선박들이 수십척이나 침몰되고 태풍중심권을 벗어난 조선반도 남쪽근해에서만도 740여척의 배들이 항방없이 풍적을 감주었으며 수많은 인명손실을 보았다.

하지만 그 태풍을 뚫고 수백여명의 제일동포청년들을 태운 《삼지연》호가 조국땅에 무사히 입항하는 《신화》가 창조되었다.

바로 그날 밤 일본을 떠나 조국으로 달려오던 《삼지연》호가 태풍을 만나 위험에 처했다는 보고를 받으신 위대한 김정일장군님께서서는 배를 구원하기 위한 전두를 몸소 지휘하시었다.

수많은 의사들과 구명기재들을 실은 2만4천대형정배와 해군함선들이 산같은 파도를 헤치며 태풍수역으로 달려가고 《삼지연》호에서는 배의 침몰을 막기 위한 결사적인 투쟁이 벌어졌다.

이렇게 되어 사나운 풍랑으로 침몰의 위기에 처하였던 《삼지연》호가 조국의 항구에 무사히 입항하는 기적이 일어나게 되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제일동포학생들에게 돌려주시는 사랑과 온정에 대한 이야기는 다 하지않아 끝이 없다.

하늘같은 이 사랑에 떠받들려 어머니수령님 탄생 70돐이 되던 해 봄 일본에 있는 유치만어린이로부터 초급학교학생에 이르는 동포자녀 모두에게 3부리씩 차례질수 있는 희귀한 산삼이 안겨지고 조국방문을 마치고 일본으로 돌아가는 제일조선학생

들을 위해 특별렬차가 달려 전설같은 이야기들도 태어나게 되었다.

하나를 주시면 열을 주고 싶어하시고 열을 주시면 백을 더 주고싶어하시는것이 제일조선학생소년들에게 배풀어 주신 위대한 장군님의 따스한 사랑이었다.

어느해인가 자금이 긴장하여 총련에 보내주기로 한 교육원조비의 나머지 돈을 보내지 못했다라는 보고를 받고 제일동포자녀들의 민족교육사업은 총련에서 우리 혁명의 대를 잇기 위한 매우 중대한 사업이라고, 금덩이를 팔아서라도 꼭 해를 넘기기로 하고 보내주어야 한다고 간곡히 이리신 위대한 장군님이시었다.

교육원조비와 장학금이 깃든 사랑의 이야기는 민족총련의 국상의 나날에도 이어졌으니 어머니수령님께서서 너무나도 절절하게 우리곁을 떠나신 5천년래의 대국상이 있는 그해 12월 초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일군들에게 총련에 교육원조비와 장학금을 보내는 문제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세워진 제도와 전통을 그대로 지켜야 한다고, 기간을 변경시키거나 그 량을 줄이지 말고 수령님께서 세실 때와 똑같이 보내주어야 한다고 간곡하게 이르시었다.

기쁨 떠나 술을 떠나 별한없이 어머니수령님과 똑같은 마음으로 총련과 민족교육을 생각하고 새세대 동포자녀들을 생각하시는 위대한 장군님을 우러르며 일군들은 수구치는 걱정의 눈물을 억척할수 없었다.

《제일동포자녀들을 위한 교육원조비와 장학금》이라는 예산항목이 생겨난 때로부터 어인 반세기가 넘는 오랜 세월이 흘렀다.

하지만 조국의 사랑은 오늘도 변함없이 이어지고있다.

지난 주제112(2023)년 4월 경에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서는 어머니수령님 탄생 111돐을 맞으며 제일동포자녀들의 민주주의적민족교육을 위하여 일본돈으로 2억 6 730만부의 교육원조비와 장학금을 총련에 보내주시는 크나큰 은정을 배풀어주시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와 위대한 장군님, 경에하는 원수님께서 제일동포자녀들을 위하여 보내주신 교육원조비와 장학금은 지금까지 169차례 걸쳐 일본돈으로 493억 9 787만 390부에 달한다.

어머니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께서 제일동포자녀들에게 돌려주시는 사랑의 력사에 경에하는 원수님의 손길아래 오늘도 끝없이 흐르고 있는것이다.

어찌 이뿐이라. 총련의 민족교육사업을 위해서라면 그 무엇도 아끼지 않으시는 경에하는 원수님의 사랑은 제14차 전국국원대회에 총련교육원군대표단을 불러주시고 대표단성원들을 모가까지 부르시어 위대한 수령님들의 태양상을 모신 붉은기름 배경으로 특별히 기념사진을 찍어주시는 최상의 영광과 행복을 안겨주시는 데도, 창립 65돐을 맞는 조선대학교 교직원, 학생들에게 축전을 보내주시고 대학이 나아갈 앞길을 환히 밝혀주시는 데도 뜨겁게 깃들여있다.

새로운 주제100년대 제일조선인운동이 나아갈 진로와 목표를 환히 밝혀주시고 총련일군들과 제일동포들을 해외혁명동지, 두터운 정을 안고 사는 혈육으로 불러주시며 위대한 수령님들의 마음까지 합쳐 각별한 사랑과 온정을 배풀어주시고계시는 경에하는 원수님.

경에하는 원수님께서는 제일본조선인총련합회결성 60돐서한에서 총련은 사회주의국가의 한 부분이며 제일동포들은 어머니조국과 해외공민을 잇고 사는 친형제, 한집안식솔이라고 하시며 우리 당과 공화국정부는 위대한 수령님과 장군님께서 맡기고있는 총련과 제일동포들의 운명과 미래를 끝까지 책임지고 보살필것이며 제일조선인운동의 강화발전을 위하여 모든것을 다할것임을 확언하시었다.

어머니조국과 해외공민을 잇고 사는 친형제, 한집안식솔. 제일동포들과 그 자녀들에 대한 경에하는 원수님의 열화와 같은 사랑과 믿음, 그것은 곧 모든 해외동포들에 대한 사랑과 믿음이다.

하기에 해외동포들은 진정한 조국인 공화국과 해외공민을 잇고 사는 우리들처럼 행복한 사람들은 이 세상에 없다고 소리높이 웨치고있는것이다.

해외동포들의 진정을 담은 이역의 하늘가에 울려 퍼지는 노래 《조국의 사랑은 따사로워라!》

대를 이어 절세위인들을 운명의 태양으로 높이 모신 해외동포들의 크나큰 긍지와 자부심, 더없는 행복을 담은 노래 《조국의 사랑은 따사로워라》는 더욱 힘차게, 더욱 뜨겁게 울려퍼질것이다.

본사기자 박철남



일본 도쿄에서 진행된 공화국창건 75돐경축 대공연 《우리의 국기》중에서



제일조선학생소년들의 2023년 새해설맞이공연 《조국의 사랑은 따사로워라》중에서

총련 소식

재일본조선청년상공회 제 27 차 정기총회 진행

재일본조선청년상공회(청상회) 제27차 정기총회가 16일 일본 미에현에서 진행되었다.

박우호 총련중앙상임위원회 제1부의장 겸 조직국장, 조일연부의장, 현대식 경제국장, 최병호 재일본조선청년상공회 회장을 비롯한 청상회 성원들이 총회에 참가하였다.

총회에서는 조국에서 보내어온 축하인사록화전집물이 상영되었다.

최병호 재일본조선청년상공회 회장의 개회사에 이어 송명남 중앙상임간사회의 인사장이 보고를 하였다.

보고자는 청상회가 민족교육지원사업과 기층조직을 활성화하는 사업에서 이룩한 성과와 경험에 대해 언급하였다.

앞으로 경에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총련 제25차 전체대회 참가자들에게 보내주신 강령적사훈을 높이 받들고 청상회의 전진사업을 상승계도에 올려세워나가야 한다고 그는 밝혔다.

그는 민족교육을 비롯한 애족애국운동을 선두에서 주도하는 조직으로서의 청상회의 면모를 일신시켜나갈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총회에서는 토론들이 있었다.

이어 《청상회상생취원운동》에 대한 표창사업이 있었다.

박우호제1부의장이 발언하였다.

그는 경에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력사적사훈에서 재일본조선청년상공회를 제일조선인운동의 주력군후비대대로 내세워주시었다고 말하였다.

청상회가 경에하는 원수님의 강령적사훈을 철저히 관철하는데서 귀중한 성과와 경험들을 이룩한것은 서한의 정당성과 생활력의 립증으로 된다고 그는 강조하였다.

그는 청상회의 활동을 떠나서 유혹한 동포사회, 황하는 동포사회를 생각할수 없다고 하면서 앞으로도 민족교육을 비롯한 애족애국운동 선두에서 주도해나가며 각계각층 동포들의 무궁한 힘을 하나로 모아 총련부흥의 새시대를 열어나가는데서 선봉적역할을 다해나가자고 호소하였다.

총회에서는 재일본조선청년상공회 회장으로 김민관이 새로 선출되었다.

재일동포들의 《우리 민족연단 2023》일본에서 진행

재일본조선청년상공회(청상회)의 주최로 《우리 민족연단 2023》이 17일 일본 미에현에서 진행되었다.

최후만 총련중앙상임위원회 의장 박우호제1부의장 겸 조직국장, 조일연부의장, 현대식 경제국장, 총련본부위원장, 중앙단체, 사업체 책임일군들, 김민관 재일본조선청년상공회 회장, 김철규 미에현 청상회 회장을 비롯한 각지 청상회 성원들과 동포들이 여기에 참가하였다.

행사는 《이어가자! 미에, 용을 쓰자! 우리 마음 하나로 모아》라는 주제로 진행되었다.

행사에서는 조국에서 보내어온 축하공연전집물과 애국선대들이 개최

하고 발전시켜온 민족교육과 애족애국운동의 전통을 계승발전시켜나가기도록 적극 고무추동한 청상회의 활동에 대한 특화전집물이 상영되었으며 예술공연이 있었다.

이어 지난 1년간 청상회가 미에현본부관하 모든 단체 일군들, 성원들과 각계각층 동포들의 무궁한 힘을 불러일으켜 미에현조직과 동포사회를 재건, 활성화하며 민족교육을 강화발전시키기 위한 사업과정에 얻은 성과와 경험을 소개하고 일반화하기 위한 토론회가 진행되었다.

행사에서는 김철규 미에현 청상회 회장이 발언하였다.

그는 경에하는 김정은원수님의

강령적사훈을 높이 받들고 각계각층 동포들의 무궁한 힘을 하나로 모아 애족애국의 자랑스러운 력사를 계승하여 동포사회와 우리 학교를 강화발전시키는 사업에 언제나 앞장서 나갈 결의를 표명하였다.

동포사회의 행복한 앞날을 위하여 모두가 단결하여 힘찬 발걸음을 내질자고 그는 호소하였다.

최후의장은 폐회사를 통해 이번 민족연단은 모든것을 어려운 속에서 모두가 한마음한뜻이 되어 동포사회에 큰 힘과 용기를 안겨주었다고 하면서 앞으로도 청상회의 기개, 동포사회의 참모습을 자랑스럽게 펼쳐나가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본사기자

민족의 단합과 번영을 위한 길에서

위인의 믿음속에 삶을 빛내인 재능있는 작가 (3)

작가 조영출이 위대한 김일성주석님을 처음으로 만나본것은 주제38(1949)년 12월초였다.

이날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새 조국건설을 명도하시는 신두에서 주도해나가며 각계각층 동포들의 무궁한 힘을 하나로 모아 총련부흥의 새시대를 열어나가는데서 선봉적역할을 다해나가자고 호소하였다.

총회에서는 재일본조선청년상공회 회장으로 김민관이 새로 선출되었다.

조영출은 민요화된 현대풍 가요를 창작하기 위해 고심어린 노력을 기울인 결과 우리 민족이 좋아하는 민요곡조에 들끓는 사회주의현실의 사상과 정서를 반영한 가사를 붙여 위대한 수령님께서 좋아하시고 인민들이 즐겨 부르는 많은 노래들을 만들어내었다.

그 대표작의 하나가 민요 《모란봉》이다. 이 민요는 혁명의 수도를 이 강산 좋은 곳에 두고있는 공화국인민의 자랑스러운 감성과 어머니수령님께서 마련해주신 사회주의제도하에서 행복하게 살며 일하는 인민들의 락천적인 생활정서, 민족적자랑을 훌륭히 표현하고있다.

조영출은 종래의 민요를 현

대적미감에 맞게 더욱 빛내일 생각으로 해방전 한탄의 상징으로 된 가사를 새로운것으로 창작하기도 하였다.

《황금산의 백도라지》(도라지라령), 《법정포배노래》, 《양산도》 등이 그런 민요들이다.

조영출의 창작활동은 문학예술의 영재이신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의 지도와 세심한 보살피심속에서 더욱 활짝 꽃피게 되었다.

위대한 장군님은 가극혁명의 나날 작가에게 온갖 사랑과 믿음을 안겨주시고 그가 인민의 기억속에 남는 훌륭한 작가로 성장하도록 손잡아 이끌어주시는 위대한 스승이시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작가와 인민이 하나가 되어 민족의 단합과 번영을 위한 길에서

민요에 더 큰 창작실천으로 보답할 일념으로 위인송가창작에 모든 정력을 바쳤다.

어느해 4월의 명절날 작가는 어머니수령님께서 보내주시는 사랑의 선물을 받아안게 되었다. 선물을 부어안고 온밤 잠을 이루지 못한 그는 북받치는 격정을 담아 가사 《만경대의 노래》를 창작하였다.

음악의 천재이신 위대한 장군님의 은정속에 이 가요는 주제시대의 명곡으로 해마다 4월의 봄명절이 오면 불리워지는 추억의 노래, 위인칭송의 노래로 되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작가를 만나실 때마다 그의 건강을

에 대하여 각별한 주의를 돌려주시며 왜 요사이 보이지 않았는가, 예애 아픈데는 없는가, 조선생은 얹지 말아야 한다, 다정히 격려해주시었다. 또한 그의 생일 일흔둘상도 마련해주시었고 어느해 인가는 인민들이 자신의 건강을 위하여 삼가 올린 선물을 보내주시는 뜨거운 은정도 배풀어주시었다.

참으로 어머니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크나큰 믿음과 온정은 지난날 슬픔과 울분의 노래만을 터치던 《집없는 천사》의 생을 아름답게 꽃피워준 자양분이였다.

본사기자 라국



